

신앙 선조들의 숨결을 느끼는
교구 40주년 도보 성지 순례



(서광수 묘)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 시복시성 위원회

<사진 설명>

*서광수는 1785년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문중의 박해를 받아 과적을 당한 채 추방되어 다섯 번째 아들인 유도(有道)가정과 함께 '상주 이안 양범리 배모기'에 오심으로 우리 교구에 세례를 받은 첫 신앙인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묘소는 지금 '상주시 이안면 양범2리 배모기'에 있습니다.

-차 례-

1. 머리말
2. 교구 성지 지도 및 사적지
 - 1) 성지지도
 - 2) 사적지
3. 지구별 도보 순례지
4. 교구 본당 공동체 설립 소사
 - 1) 안동교구의 신앙적 연원(淵源) 약사(略史)
 - 2) 교구전체 본당 설립 순서
 - 3) 지구별 본당 설립 연도별 순서
 - 4) 100년 이상된 제(諸) 공소
5. 성지 소개
 - 1) 북부/동해지구
 - ① 홍유한 선생의 유적지 및 묘소
 - ② 우련전 교우촌
 - ③ 건사골 교우촌
 - ④ 곧은정 교우촌
 - ⑤ 곰직이 교우촌
 - ⑥ 노래산 교우촌
 - ⑦ 머루산 교우촌
 - ⑧ 왕피리 갈전 교우촌

2) 상주지구

- ① 이안 교우촌
- ② 명예목 교우촌
- ③ 앵무당 교우촌
- ④ 잣골 교우촌
- ⑤ 상주시의 옥터/관아/처형터
- ⑥ 서산 화형터
- ⑦ 삼괴리 신앙 고백비
- ⑧ 삼괴리 교우촌

3) 안동지구

- ① 안동의 옥터

4) 문경지구

- ① 한실 교우촌
- ② 여우목 교우촌
- ③ 마원 성지와 순교자 박상근 마티아 묘소
- ④ 최양업 토마 신부의 사적지
- ⑤ 건학 교우촌

6. 순교자 박상근 마티아

- ① 생애
- ② 박상근 마티아 가계도
- ③ 박상근 마티아에 대한 교회 안의 공식 기록
- ④ 박상근 마티아 순교지인 상주 관아.옥터에 대한 도면
- ⑤ 박상근 마티아 순교자 묘소 확인 및 발굴, 이장
- ⑥ 박상근 마티아 순교자 시복시성 현장 방문 조사

7. 순례기도

1) 출발하면서(성당에서 혹은 차안에서)

2) 차안에서

① 묵주기도

② 칼래 강 신부님의 전교 수기를 통해서본 외국 선교사들의 활동과 당시 교우들의 신앙생활 모습

③ '칼래 강 신부님과 박상근 마티아의 우정' 역할극

3) 걸으면서(신앙 선조 말씀 암송)

4) 성지에서 기도(십자가의 길 기도)

5) 성지에서 미사

6) 순례를 마치면서

8.성가

1. 머리말

우리 안동 교구는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삶은 한국 교회 초기부터 시작되어 200년이 넘는 신앙의 뿌리를 담고 있습니다. 선조들이 동고동락하며 신앙의 가르침 안에서 훌륭히 살았던 삶의 흔적이 묻어 있는 교우촌이 36곳이고,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며 목숨을 바쳐 주님께 대한 신앙을 증거하였던 형장이 3개소가 있으며, 선조들의 무덤을 비롯한 신앙의 사적지가 9곳이나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라져 없는 곳도 있지만 설립된 지 100년이 넘는 공소가 12개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이루어진 외국인 선교사들의 삶의 흔적이 여기 저기에 남아 있어 한국 천주교회 지난 200여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안동교구 설정 4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구는 주님 섭리의 손길 속에 이 땅에 그 고귀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그것을 지켜 내고 오늘에 이르게 해 주신 신앙 선조들의 삶의 숨결을 다시금 느끼고자 합니다. 교구의 사제, 수도자, 평신도, 모두가 함께 그분들이 내 딛었던 바로 그 발자국 위에 우리 자신들의 발자국을 올려놓으면서 그분들의 삶을 느껴보면서 오늘, 지금 우리 자신의 신앙의 삶을 그분들을 거울로 삼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고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 선조들의 숨결을 느끼는 교구 40주년 도보 성지 순례'**는 이러한 뜻에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도보 성지 순례의 목적은 우리 교구의 신앙 뿌리를 만나고 오늘에 이르는 줄기를 만나는 시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 교구 신앙 여정을 이해하고 배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순례기도와 함께 몇 가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교구 본당 설립 소사이고 다음으로는 성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마지막으로 순례기도를 몇 가지 담았습니다. 걷고 또 걷는 순례 여정 안에서 선조들과 대화하면서 주님께 더욱더 기쁘게 나아가고 형제적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구별, 본당별, 단체별 혹은 개인적으로 여건에 맞추어 필요한 자료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순례기도는 다만 길잡이입니다. 필요하시면 변경하고 보완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2) 성지 및 사적지

항 목	소 재
교우촌	명예목(화령), 앵무당(화령), 잣골(모동), 여우목, 한실, 곰직이(봉화), 건사골(봉화), 부럭이(문경), 건학(문경), 우련전(영양), 곧은정(영양), 노래산(청송), 보문절터(화령), 머루산(영양), 왕피리(영양 신암리 갈전), 표석골(공평), 먹뱅이(가은), 허리티(예천), 새터(함창), 예목(풍기), 낫티기(예천), 동송리(예천), 화산골(상주), 삼피정(옥산), 공성(옥산), 작골(함창), 한두리(문경), 물량리(중동), 갈골(화령), 오수골(문경), 소정리(함창), 밤바우(함창), 가무내(화령), 널기(화령), 모전(모전), 명전리(송현동)
공소 (100년이 상된 곳)	쌍용, 수봉, 쌍호, 도경(도장), 청리, 늘배미(병암), 사실, 역곡, 감바우, 목가(사별), 하송(화령), 하갈(함창)
순교지	안동 옥터(송현동), 상주 옥터(남성동), 서산화형바위(옥산)
기타 (사적지)	삼피정 신앙고백비(옥산), 최양업 신부 선종지(문경), 마원성지(문경), 홍유한 유택(하망동), 우곡 홍유한 선생 묘소(봉화), 서광수 일가 묘원(함창), 산막골(화령, 폐룡신부 사목중심지), 오도재-절골(최양업 신부 서신 작성지), 순교자 서유형(바오로)묘소(함창)

3. 지구별 도보 순례 코스

<순례 코스 및 일정> : 이 코스 및 일정표는 ‘도보’순례를 전제로 하여 만든 것이며, 여기에서는 어디까지나 <예시>를 든 것일 뿐입니다. 순례자의 원의에 따라 순례 코스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단, 도보순례 시, 반드시 관할 본당에 문의하시고, 그리고 사전에 답사 팀을 파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후일에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다양한 코스를 소개해 놓았습니다.)

1). 1일 순례

(*표시는 추천 코스입니다)

(1) 상주지구

- *1) 화령성당(출발).....(약8-10km)....앵무당(평온)
- *2) 수봉공소.....(2-3Km)....오도티.....(3-4Km)...잣골(산막골)
- *3) 서문동 성당..... 상주 옥터.....(8-10Km)....신앙고백비
- 4) 삼가저수지(출발).....(약8-10Km).....명예목(목적지)
- 5) 수봉공소-.....(산길포함7-8Km)....백화산 보문절터(금돌성)
- 6) 옥산성당.....신앙고백비

(2) 문경지구

- *1) 한실-.....(산길포함 7-8KM).....마원성지
- *2) 문경성당.....(5KM).....진안성지-.....(1Km)....마원성지
- *3) 당포공소....(13Km).....여우목
- 4) 동로면소재지-....5-7Km.....부럭이(윗생달)
- 5) 나한리 서유형(바오로)묘소-.....5-7Km.....배모기 서광
수 일가 묘원

(3) 안동-익성지구

- 1) 쌍호공소-동송리-도경(도장)공소
- 2) 송현성당-안동 옥터-명리(명동)

(4) 북부지구

- *1) 휴천동성당 단산 홍유한 유택
- *2) 다덕 약수터.....우곡 홍유한묘소
- 3) 오전약수터.....곰직이
- 4) 재산공소.....건사골

(5) 동예지구

- *1) 영양성당...차량이동--- 우련전-곧은정...남회룡 방향
- *2) 청송성당.....자동차(혹은 버스로)- 안덕2리 마을회관
.....청송 노래산
- 3) 영양성당...차량이동.....신암분교.....신암 갈전(왕피리)
- 4) 영양성당....차량이동.....삼의계곡 입구.....머루산
- 5) 포산1리 마을회관..... 머루산

(6) 기타(청년단체 1일 순례)

- 1) 함창성당-하갈공소- 퇴강본당-도경공소-쌍호공소
- 2) 다인성당-물량리(중동)-옥산성당
- 3) 서문동성당-하송공소
- 4) 함창성당-서문동성당-신앙고백비

2). 1박2일 순례 :

1)-4)까지는 박해시대 선교사들이나 신자들이 다녔다고 예상되는 길이며, 대체로 1일 순례일정을 참고하여(미리 숙소를 정한 다음) 순례여정을 계획하면 좋을 듯합니다. 물론

2박3일이나 3박4일도 마찬가지입니다.

- 1) 화령성당-하송공소-쌍용공소-가은성당(1박)-한실-마원
- 2) 쌍용공소- 하송공소-화령(1박)-앵무당-갈골-명에목
- 3) 수봉공소- 오도재-갓골-가무내-모동공소(1박)-청리공소
-신양고백비
- 4) 모전성당-점촌성당-표석골-마원성지(1박)-여우목성지
- 5) 노래산...청송성당(1박)...차량이동...머루산...
- 6) 우련전-건사골....차량이동(봉화성당1박)....차량이동
...다덕약수터-우곡
- 7) 우련전...차량이동...신암갈전...차량이동..영양성당(1박)
....차량이동...머루산
- 8) 우련전-곧은정-곰직이...차량이동...봉화성당(1박)...차량이동
...단산면 홍유한 유택.
- 9) 진안리....마원...문경성당(1박).....여우목
- 10) 마원....한실....차량이동...가은성당(1박).....차량이동
...쌍용공소....하송공소
- 11) 화령성당.....수봉공소(1박)...백화산 보문절터
- 12) 오전 약수터...곰직이...(차량이동).....남회룡.....곧은정
.....우련전.....

<참고> : 박해시대 교우촌을 중심으로 순례를 할 경우에는 지형이 험악하므로, 1일 순례는 한 곳을 택하여 순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 ●문경성당-여우목 ●한실-마원 ●진안리-여우목
●수봉공소-백화산절터 ●청송성당-노래산
●진보성당-머루산

4. 교구의 본당 공동체 설립 소사[小史]

1) 안동교구 본당의 신앙적 연원[淵源] 약사[略史]

안동교구의 신앙적 연원, 곧 신앙의 뿌리를 찾기란, 특히 모태(母胎)본당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한국천주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의외로 쉽게 찾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왜냐하면 안동교구의 역사는 한국천주교회의 역사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천주교회의 신앙적 연원이 곧 안동교구의 신앙적 뿌리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 1751년 성호(星湖) 이익(李瀾) 선생의 문하생인 홍유한(洪儒漢, 1726-1785) 선생은 권철신, 홍낙민, 이기양 등과 함께 서학(천주학) 연구반을 만들었다. 1775년 이 연구반의 수장격인 홍유한은 천주교 교리를 삶으로 옮기기 위해 지금의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로 이주하였고, 나머지 다른 회원들은 계속적인 서학연구에 몰두하면서 홍유한 선생과 끊임없이 교제를 쌓았다. 1779년 회원들은 천진암(혹은 주어사)에서 특별강화회를 시작하였다. 1784년 드디어 북경에 파견한 이승훈이 베드로라는 본명으로 세례를 받아 옴으로써 이 땅에 신앙공동체, 곧 한국천주교회 공동체가 창설되기에 이르렀다.

2. 1785년 명례방(명동성당) 신앙집회에서 을사추조적발사건이 발생하였다. 그해 홍유한 선생이 선종하게 되고, 서광수 일가가 함창 이안리로 피신해 옴으로써 안동교구 안에 세례 받은 첫 신자가 살게 되었으며, 그 복음의 씨앗이 주변으로 두루 퍼져나가기 시작하였다.

3. 1801년 신유박해 이후 교구 안에서는 크고 작은 수많은 교우촌들이 형성되었고, 마침내 조선천주교회는 1831년 북경교구로부터 분리되어 조선교구(대목구)로서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 받게 되었다.

4. 1785년부터 1886년까지 100년 동안 안동교구 관할 하에 살아가는 신자들은 온갖 박해를 다 겪었지만, 박해가 극심하면 할수록 신앙공동체는 더욱 굳세어져갔다.

5. 한국 교회 본당의 모태가 되는 한국 최초의 성당은 1880년대 초에 부지 매입을 하고 1887년에 성당으로 자리 잡은 종현(鐘峴, 지금의 명동성당)성당이다. 1890년 당시 교황청에서는 조선교구를 서울대목구로 개칭하였지만, 이는 충청도 이북지역만을 관장하게 되었다. 교황청에서는 서울교구 관할 지역 외에 타 지역을 관장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고, 1911년 4월 8일 안동교구 관할 지역을 제외한 경상도를 관할하는 교구로 대구교구를 설립되었지만, 곧 1913년부터는 관할지역을 경상도 전역으로 확대하였다.

6. 1911년 대구교구가 설정되기 전, 대구에서는 1889년 대구본당(지금의 계산동성당)이 설립되었고, 여기에서 분할되어 1894년 가실본당이 설립되었다. 당시 대구본당은 대구이남지역과 동해안을 담당하였으며, 가실본당은 김천, 상주, 문경, 안동지역을 담당하였다.

7. 대구교구는 왜관의 가실본당이 경상도 북부지방까지 담당하기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판단하고 **1922년에 공평본당(지금의 점촌성당)과 물미본당(지금의 퇴강성당)을 설**

립하게 되었다.

8. 이후 1927년 안동(목성동)→1932년 예천→1936년 상주(서문동)→1948년 함창→1957년 가은→1957년 의성 순으로 안동교구 내에 제(諸)본당이 설립되어 2009년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안동교구 모든 본당들의 모태가 되는 본당은 공평과 물미본당이라 볼 수 있다.

2) 안동교구 제(諸)본당 설립순서

표석동(점촌)/퇴강(1969년도에 폐쇄 후 2003년에 다시금 설립)→안동(목성동)→예천→상주(서문동)→함창→가은→의성→봉화→울진→영주(휴천동)→문경→다인→화령→영양→남성동→영덕→청송→신기(주평)→.....<교구설정1969년 5월 29일/교황 바오로6세>.....→안계→동부동(폐쇄후 용상동으로 이전)→태화동→풍기→모전→하망동→계림동→용상동→후포→옥산→구담→송현동→영해→북면→강구→사벌퇴강→정상동→진보→개운동→풍양 농촌 선교본당 (현재 37개 본당)

3) 안동교구 지구 별 제(諸)본당 설립 순서

1) 안동지구 : 안동본당(1927년 6월14일)-목성동(1949년 12월18일)- 주교좌 성당 설정(1969년 6월29일)-동부동 분가(1973년 9월16일)-태화동 분가(1979년 12월1일)- 동부동 폐쇄 후 용상동 설정(1991년 1월1일)-송현동 설정(1997년 8월2일)-정상동 설정(2004년 7월9일)

2) 의성지구 : 의성(1958년 3월20일)-다인(1961년 5월 25일)-안계(1972년 9월15일)-구담(1995년 7월16일)-풍양 (2008년 7월18일)

3) 동해지구 : 울진(1958년 5월24일)-영양(1963년 10월 8일)-영덕(1964년 11월23일)-청송(1965년 2월13일)-후포 (1991년 7월5일)-영해(1999년 7월18일)-북면(1999년 10 월3일)-강구(2002년 7월3일)-진보(2005년 7월15일)

4) 문경지구 : 표석동(1922년 9월23일, 후에 이전하여 그 이름이 점촌과 충현을 거쳐 현재 점촌동)-함창(1942년 5 월21일)-가은(1957년 5월 28일)-문경(1958년 12월7일)-신 기(1965년 2월27일)-모전(1982년 9월1일)

5) 북부지구 : 예천(1932년 5월22일)- 봉화(1958년 5월 10일)-영주(1958년 8월15일, 후에 휴천동으로)-풍기(1980 년 1월10일)-하망동(1988년 8월28일)

6) 상주지구 : 퇴강(1922년 9월23일)-상주(1936년 5월, 후에 서문동으로)-화령(1962년 4월12일)-남성동(1963년 11월28일)-퇴강본당 폐쇄(1969년 5월29일)-계림동(1990년 6월1일)-옥산(1994년 12월21일)-사벌퇴강(2003년 7월11 일)-개운동(2007년 7월5일)

4) 100년 이상 된 제[諸]공소

1) 안계 본당 : 쌍호(1866년 전후), 신계동(1890년대)

2) 문경 본당 : 허리티(생달, 1894), 여우목(1866년 전), 한두리(1890년대 전후)

- 3) 예천 본당 : 도경(1866년 전후), 신당(구읍, 1890년 전후),
노티기(1890년 전후), 새탈(1900년 전후),
삼본(1890년 전후), 동림(1890년대),
사골(1890년대), 우리개(1890년대),
동송리(1890년대)
- 4) 풍기 본당 : 야목(1890년 전후)
- 5) 다인 본당 : 곤대(1890년 전후), 광덕(1900년 전후),
다래(1890년대)
- 6) 풍양 본당 : 산성(1890년 전후), 모단(1890년 전후),
수산(1890년 전후), 삼일(1890년대)
- 7) 화령 본당 : 수봉(1866년 이전), 널기(1890년대),
가무내(1890년대), 세거리(1890년대)
- 8) 가은 본당 : 떡뱅이(1890년대), 쌍용(1890년대),
도탄리(1900년 전후), 돛마름(1900년 전후),
갈동(1900년 전후), 오소리골(1900년 전후)
- 9) 함창 본당 : 사실(1880년대), 늘배미(1880년대),
척동(1870년대), 함창(1880년대 전후),
새터(1880년대 전후), 소정리(1900년 전후),
염동(1900년 전후), 감바우(1900년 전후),
봉오재(1900년 전후),
- 10) 옥산 본당 : 삼괴리(1870년대), 청리(1880년대),
공성(1890년대)
- 11) 송현 본당 : 명동(1890년대)
- 12) 점촌본당 : 표석골(1900년 전후)
- 13) 사별퇴강 : 퇴강(1890년대), 목가(1900년 전후)

5. 순례 성지 소개

1. 북부지구/ 동해지구

① 홍유한(洪儒漢) 선생의 유택지 및 묘소

(1) 유택지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하이목〈아랫배나무실〉이다. 홍유한 선생은 1775년 충청도 예산에서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九邱里)의 하이목(下梨木) 즉, 아래배나무실로 와서 살았다. 위치는 영주에서 북쪽으로 풍기

와 순흥의 소수서원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갈림길인 동촌에서 단산 방면으로 단천을 따라 가다 보면 사천이라는 곳에 이른다. 이곳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작은 다리를 건너 지금은 폐교가 된 구고초등학교를 지나 2.4km를 가면 선생이 사시던 곳〈遺墟地〉에 이른다.

영주시에서 이곳 구구리까지의 거리는 13.64km이다. 선생의 유택에 이르면, 바깥쪽 정문 위에는 영조 2년(1726)에 사헌부 지평으로 증직되어 하사 받은 「증 통선랑 사헌부 지평 홍중명 지문(贈 通善郎 司憲府 持平 洪重明 之門)」의 현판이 걸려 있고, 집 안쪽 정문 위에는 조선 경종 4년(1724)에 효자로 정려된 홍유한 선생의 조부 홍중명(洪重明)의 「일효자 학생 홍중명 지문(一孝子 洪重明 學生之門)」이라 새긴 효자문 현판이 걸려 있다.

이 효자문의 현판은 홍유한 선생이 서울 아현동에 살다가 1757년 충청도 예산으로 이사를 갈 때 가져 갔다가, 1775년 「칠곡」에 의한 천주교 수계생활을 더욱 철저히 하기 위

하여 이곳으로 이사 올 때 가져 온 것이다. 선생은 이곳에서 1785년 3월 10일(음 1월 30일) 세상을 떠날 때까지 10년 동안 철저히 『칠극(七克)』에 의한 천주교 수계생활(守誠生活)을 하였다.

(2) 홍유한 선생의 묘소 및 성역화

〈연락처 : 피정의 집 사제관 054-673-4151,
봉화성당 054-673-2134〉



경북 봉화군 봉성면 우곡리 15-1에 있다. 홍유한 선생이 1775년 3월 10일 60세로 세상을 떠나자 그해 5월 27일(음 4월 19일)에 유택에서 50리쯤 떨어진 봉화군 봉성면 다덕약수터가 있는 우곡리의 문수산 중턱에 묘 터를 잡아 안장을 했다. 이 묘 터는 임금이 보낸 풍수가 터를 잡았다고 전해 온다.

1995년 3월 8일 봉화본당 신자들과 선생의 후손인 홍관희 선생이 가토(加土)를 하기 위하여 묘지에 도리 석을 쌓으면서 봉분(封墳)의 흙을 조금 파 해쳤을 때 관을 보호하기 위해 주위를 덮은 석회 위에 두텁게 진흙을 바르고 「山林處士 洪公之墓」라고 솟으로 쓴 글을 발견했었다.

(3) 홍유한(洪儒漢)의 생애

선생의 본관은 풍산(豊山)이고, 부친 홍창보(洪昌輔)와 모친 창녕 성씨(昌寧成氏) 환의 따님 사이에서 1726년(영조 2년) 서울 아현동에서 출생하였다. 자는 성문(聖文)이며 호(號)는 농은(籠隱)이다.

16세 때 부친의 권고로 과거를 포기하고, 성호 이익 선생에게서 『천주실의』 『칠극』 등 서학(西學)을 연구하였으며, 1757년경에는 서울 살림을 정리하고 충청도 예산으로 내려가서 『칠극』에 따른 수계생활을 시작하였다. 1775년부터는 소백산 아래 있는 경상도 순흥 고을 구고리<경북 영주군 단산면 구구리>로 옮겨와서 10년 동안 수계 생활에 전념하다가 1785년에 선종하셨다.

② 우련전 교우촌

연락처 : 영양성당 054-683-2105>



(1) 위치와 역사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의 우련전 마을이다. 영양읍에서 일월산 방향으로 향하다가 일월산 터널을 막 빠져나오면 지금은 폐교가 된 우련전 초등학교 <갈산분교>를 만나게 된다. 바로 이곳이 조선 시대 귀양지이기도 했던 우련전이다. 순교자들이 살았던 옛 교우촌은 터널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일월산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곧장 일월산으로 향하지 말고, 민가가 서너채 있는 곳을 향하여 500m쯤 더 가면 마을 끝이 나오는데 마을 끝 골짜기가 바로 옛 교우촌이다.

좌회전하여 폐교 방향으로 내려가면 남회룡과의 중간 지점쯤에 곧은정이라는 교우촌이 있다. 여기에 1801년 신유박해 전인 1798년경에 충청도 면천 고을 솔피에 살던 김대건 신부의 종조부 김종한(안드레아)과 부근의 건사골에는 당시 예비신자인 이윤집 가정 등 몇몇 가정들이 살기 시작하였다.

1815년 4월 23일(음)에 김종한(안드레아)은 안동 포졸들에게 잡혀 영장(營長) 앞으로 끌려가 부근의 머루산과 노래산에 잡혀 온 증거자들과 함께 20개월 동안 감옥에서 ‘옥중 신앙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던 중 1816년 11월 1일(음) 대구 관덕정에서 7명이 순교하였다. 건사골에 살던 예비신자 이윤집은 배교하지 않고 꾀꾀하게 신앙을 지키다가 굶주림과 쇠약으로 감옥에서 옥사하였다.

③ 건사골 교우촌

〈연락처 : 봉화성당 054-673-2134〉

(1) 위치와 역사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에 있는 건사골 교우촌은 우련전 교우촌에서 동북쪽으로 깊은 계곡을 따라 1.5km 쯤 가면 일월산 줄기인 장군봉(1,135m) 밑의 계곡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는 1815년 을해박해(乙亥迫害) 당시 예비신자였던 이윤집이 살고 있었다. 이윤집(이회영 ?)은 고향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지만 박해 당시 예비신자였던 것으로 보아 봉화지방 사람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는 직업이 나무바가지(木器)를 만드는 사람으로 천주교에 입교한 후에는 세례성사는 받지 않았지만 예비자로서 독실하게 천주교를 믿었다. 1815년 을해박해가 일어났을 때

안동 포졸들에 의해 4월 23일 <음력> 김종한을 체포할 때 함께 체포되어 배교하지 않고 굶주림으로 건강이 쇠약해져 순교하였다.

④ 곧은정 교우촌

〈연락처 : 영양성당 054-683-2105〉



(1) 위치와 역사

건사골에서 깊은 계곡을 따라 다시 동북쪽으로 1.5km가량 내려가면 현재 남회룡 제4다리 좌우에 곧은정이 있다. 계곡을 경계로 하여 봉

화군 재산면 갈산리와 영양군 수비면 신암리로 나누어지는 곳인데 군 경계지역 계곡의 길 바로 옆인 영양군 수비면 신암리 지역의 우거진 낙엽송 밭에는 여기저기 돌무더기들이 쌓여 있고, 야생 약초들과 칩냉쿨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

이곳에 옛 집 터의 흔적인 구들장과 굴뚝이 있고, 구들장이 있는 빈 집터 옆에는 물을 길던 이끼 낀 샘이 나뭇잎으로 덮여 있다. 약 50cm 정도 깊이 의 샘은 허물어졌지만 아직도 물이 날 듯 질척하다.

당시 곧은정 교우촌에는 충청도 여사울 출신 중인계급의 부유한 가정 출신인 김경서(희성, 프란치스코)가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한 부친 김광옥(안드레아)의 뜻을 따르겠다는 거룩한 신앙심으로 모든 재물을 버리고 이곳 일월산 중에 있는 경상도 영양 고을 곧은정으로 피난 와서 살았다.

1815년 3월, 김경서(희성, 프란치스코)는 배교자 전지수가 안동 포졸들을 데리고 나타났을 때 포졸들과 배교자까지도 관대하게 대접하였다. 어머니에게는 하직을 고한 다음 아내

에게 ‘어머님 봉양과 아이들을 잘 가르칠 것과 함께 때가 되면 자기의 뒤를 따르라’는 부탁을 하고 나서 기쁜 마음으로 포졸들을 따라 나섰다.

안동에서 첫 심문을 당하고 며칠 후에 대구의 경상감영으로 이송되었다. 혹독한 심문을 받은 후 약 20개월 간 감옥에서 기다리던 그는 1816년 12월 19일 <음 11월 1일>, 사형집행을 기다리며 함께 옥살이를 하던 7명이 모두 함께 대구 남문 밖의 관덕정에서 참수되었다. 시신은 형장 근처에 묻혔고, 무덤마다 묘비가 세워졌는데 그의 나이는 52세였다.

이듬해 1817년 3월 4일, 10여 명의 신자들과 친척들이 의논하여 순교자들의 시신을 더 안전한 곳으로 이장을 했는데 현재 한국교회에서는 순교자 김경서의 시복 시성을 추진 중이다.

⑤ 곰직이 교우촌

〈연락처 : 봉화성당 054-673-2134〉



(1) 위치와 역사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곰지기골 <곰집>
은 오전(梧田) 동북쪽에 있다. 봉화읍에서 오전 약수 탕 가는 길목 1km 못 미쳐 왼쪽 깊숙한 골짜기로 곰이 새끼를 쳐서, 또는 곰의 혈이 있다는 풍수지리설에 의해 곰직이골이라 한다는 지명유래가 있다.

봉화군과 영주시와 강원도 영월군 경계지역에 있는 선달산(1,236m) 입구와 오전 약수터에서 박달령 <봉화군의 물야면과 춘양면 및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과 경계지역에 있는

산 해발 1,060m)으로 올라가는 깊은 골짜기가 바로 곰직이골인데 임진왜란 당시 피난지로 전해 오는데 몇 곳에 옛날 집터와 웅기 가마터가 발견되었다.

1827년 정해박해 때 충청도 홍주 고을 출신인 이재행(종일, 안드레아)이 고향에서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자 집과 재물을 버리고 이웃을 떠나 산골에 은거하였는데, 여러 도(道)로 피난을 다니다가 마침내 이곳 곰직이골 교우촌에 안착해 살다가 포졸들에게 체포되었다.

이재행(안드레아)은 다른 3명의 신자들과 함께 옥에 갇혀 13년 간 옥살이를 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다가 1839년 5월 26일 (음 4월 14일) 대구의 남문 밖 관덕정에서 순교하였다. 그때 그의 나이는 64세였다. 현재 한국천주교회에서 시복 시성을 추진 중이다.

황해도 사람으로 경기도 양지 마을에 살았던 이성욱(필립보)과 이성천(베드로) 형제는 1839년 기해박해를 만나 봉화로 피난 왔다가 다시 충청도 배론으로 가서 살았는데 1866년 병인박해 때 체포되어 충주에서 순교했다.

⑥ 노래산 교우촌

〈연락처 : 청송성당 054-872-2051〉



(1) 위치와 역사

경상북도 중동부 지역에 위치한 청송군은 한반도의 동해안 쪽으로 치우쳐서 남북으로 길게 뻗은 태백산맥의 험준한 산들이 많은 산악지대이다. 특히 청송군 안덕면 노래2리에 있는 노래산(743m)은 산의 형세가 ‘네 신선(神仙)이 걸어가는 발 모양’

같이 생겨 늙은 보래(神仙)들이 오는 곳이라 해서 노래산이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1801년 신유박해 후에 충청도의 홍주 · 청양 · 덕산 고을과 전라도와 경상도 상주에서 피난 온 신자들이 새로운 교우촌을 이루며 살기 시작했다. 당시 높은 산꼭대기에 분화구처럼 생긴 이곳에서 30여 호 신자들은 넓은 산지에 화전(火田)을 일구어 자급자족을 하면서 산 아래 있는 외교인들과는 일체 접촉을 하지 않고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증언자 윤순용(63세)>

1801년 신유박해를 전후로 이곳에 숨어 든 신자들은 15년 동안 거의 흉·풍년을 모르고 비교적 풍부한 생활을 하면서 살았다. 그러나 1814년, 전국적인 큰 흉년을 만나 어려운 처지에 특히 경상도 지방은 수해까지 겹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고 굶어죽을 형편이었다. 이곳을 드나들며 신자들의 도움을 받던 박물장수 전지수도 생활이 어렵게 된 신자들의 애궁(哀矜)이 줄어들자, 구걸로 받은 것으로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여 신자들을 부활대축일인 1815년 2월 22일에 청송현의 관장에게 밀고를 하여 침례를 드리고 있던 신자들을 모조리 체포하였다. 신자들은 청송의 상부 관청인 경주 진영과 대구의 경상감영으로 끌려 다니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증거하였다.

사형선고를 받고 사형집행 때까지 살아남은 신자는 노래산 출신인 고성대(베드로) · 고성운(요셉) · 김화춘(야고보) · 구성열(발바라) 등과 이시임(안나, 진보) · 김경서(프란치스코, 영양) · 김종한(안드레아, 우련발) 등 모두 7명이었다. 이들은 옥살이를 하다가 1816년(병자) 11월 1일(음) 대구 관덕정에서 순교하였다. 그들의 시신은 관장의 명령으로 형장

근처에 묻히고 묘비가 세워졌었는데 이듬해(1817년) 3월 4일에 그의 천척들과 신자들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옮겨져 무덤 네 곳에 함께 묻혔다.

따라서 노래산의 교우촌은 없어지고 살아남은 신자들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칠곡 신나무골과 한티·성지골·영천·안동·길안·경주 진목정·청도 구룡·언양 등지로 옮겨살게 되었다.

⑦ 머루산 교우촌

〈연락처 : 영양성당 054-683-2105〉



(1) 위치와 역사

구머리는 본래 진보군 석보면 지역으로 예부터 머루가 많이 나서 구머리, 또는 포산(葡山)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의 폐합에 따라 **영양군 석보면**에 편입되었다. 태백산맥 줄기인 포도산(538m) 꼭대기에 있는 심산유곡의 마을이다.

임진왜란 때의 피난지였던 이곳에 1801년 (신유)박해 후에 충청도의 홍주, 예산 등 여러 곳에서 피난 온 신자들이 숨어들어와서 교우촌을 이루어 살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산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짓고, 다래와 머루를 따 먹으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1815년 청송 노래산 신자들이 체포된 지 며칠 후에 포졸들이 이곳까지 덮쳐서 모든 신자들을 체포하여 안동진영으로 끌고 갔다. 『일성록(日省錄)』의하면, 박사행 등 20명은 즉시 석방되었고 김시우·최윤금·심환·김광역·김홍금·김현동·김광역의 처 분령

(分令) 및 그의 아들 종건, 김홍금의 자녀인 김장복과 딸 작단, 김헌동의 아들인 갑득, 딸 시임(안나), 정임 등 13명은 용감히 신앙을 증거 하였다.(『일성록』 순조 을해년 6월 19일)

⑧ 왕피리(신암리) 갈전 교우촌

〈연락처 : 영양성당 054-683-2105〉



(1) 위치와 역사

영양군 수비면 갈전은 경상도 지방 <예전에는 울진군이 강원도의 땅이었으나 1965년에 경상북도에 편입되었다.> 의 최북단으로 동해안을 끼고 남쪽으로 뻗어 있는 태백산맥의 통고산(1,066m)와 대령산(652m)사이에 있는데 통고산 동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동북쪽으로 흘러 광천과 합하여 수산리를 지나 동해로 들어가는 왕피천(58.1km)의 발원지점이다.

이곳은 영양군 수비면과 경계지역으로 ‘나그네 고개’를 넘으면 바로 수비면 신암리 땅이다. 이 고개는 옛날부터 산을 넘어갈 나그네들이 쉬어 갔다고 해서 ‘나그네 고개’라고 부른다. 옛날 부족국가 시대에 실직국의 안일 왕이 예국의 침략을 받아 피난을 왔다하여 왕피동이라고 한다. 또한 고려 공민왕이 홍건적의 난으로 이곳에 피신하였다고 하여 지명을 왕피리라고 부른다.

이곳에 천주교 신자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문헌상으로 1801년 신유박해 때 충청도 서산지방의 중인(中人)출신으로 머루산으로 피난 온 김강이(여생, 시몬) 형제 가정이 농사를

지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중 그가 입교시킨 새 신자 몇 사람과 함께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따로 마을을 이루어 삶으로써 교우촌이 형성되었다.

1815년 을해박해 때 그의 집 하인의 밀고로 포졸들에게 붙잡혀 안동진영으로 압송되었다. 그리고는 그해 5월에 그의 아우 김 타대오와 함께 원주감영으로 이송되어 그곳에서 6, 7명의 신자들과 함께 옥중생활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지 8개월 만인 1815년 11월 5일 옥사하였다. 그때 그의 나이 50세였다.

1815년에 신자들이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붙들려간 후 이곳 머루산 교우촌은 완전히 없어지고 대부분의 신자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2. 상주지구

① 이안 교우촌

〈연락처 : 함창성당 054-541-3037〉



(1) 위치와 역사

상주시 이안면 양범리의 배모기는 조선시대 때 함창군 상서면의 지역으로, 지형이 뱀의 목처럼 생겼으므로 양배모기 또는 양범리라 하였다고 전한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주군 이안면에 편입되었다.

이곳에는 1785년 을사추조적발 사건 때 문중박해로 낙향한 서광수의 가정에 의해서 처음으로 복음의 씨가 떨어졌다.

영남지방에 최초로 소개된 첫 교우 촌이다. 부근의 사실과 은재 <저음리> · 작골 · 감바우 등에도 옛 교우촌이 있다.

1784년 이승훈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와서 포교활동을 함으로써 한국 천주교회가 창립되었고, 그 이듬해인 1785년 3월 명례방 김범우(토마스) 집에서 신앙집회가 있을 때 일어난 을사추조적발 사건에 의해서 문중박해로 문중에서 파적을 당한 서광수의 가족들이 이 지방의 이안면 배모기로 피신해 옴으로써 영남지방에 처음으로 천주교 신앙의 씨가 뿌려졌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서광수의 아들인 서유도 가정은 문경 한실로 이사를 가고, 서유도의 부인 전주 이씨는 한실에서 순교하였다. 또 모전에 살던 그의 친척 서유형(바오로)과 형수인 박 루치아가 상주 포교에게 잡혀서 상주에서 순교하였다. 서광수는 그 이듬해인 1786년에 72세로 이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서광수의 묘소는 서울에서 내려와 처음 살았던 상주군 이안면 양범리 배모기에 있는데 그의 5남 서유도의 묘는 그 아래에 있다

② 명예목 교우촌

연락처 : 화령성당 054-533-0044>



(1) 위치와 역사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구병리에 있으며 경북 상주시 화남면 평온리와 경계지역이다. 명예목 <현지 사람들은 ‘머미

기’> 이라 알려져 있지만 명에목 윗마을이 구병리이고, 구병리의 위쪽인 북쪽 골짜기가 돌미기인데 이곳이 옛 교우촌이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상주시의 앵무당과 갈골과 돌미기는 속리산(1,057m)의 지맥인 구병산 능선을 경계로 이웃하고 있는데 돌미기는 구병산(876m)의 서쪽 기슭 중턱에 해당한다.

인근의 교우촌으로는 이윤일(요한)성인이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갈골과 앵무당이 있다. 아울러 최양업(토마스) 신부가 편지를 쓰고 여름휴가를 보낸 동관음사가 있던 절골 <상주시 화남면 동관1리 동관음사 터> 이 인접해 있다.

충북 보은군은 본래 신라 삼년산군(三年山郡)인데 고려 제 8대 현종 6년(1015년)에 경상도 상주에 소속되었다가 조선 조 태종 13년(1413)에 경상도로부터 충청도에 편입되었다.

예부터 피난지로 알려진 이곳은 가마기를 거쳐 이곳에 피신 온 박경화(바오로) · 박사의(안드레아) 부자가 1827년 정해박해 때 상주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문초를 받고, 다시 대구의 경상감영으로 이송되어 그곳에서 박경화(바오로)는 옥사하고, 아들 박사의(안드레아)는 12년간 감옥에서 고생을 하다가 함께 옥살이를 해왔던 김사건 · 이재행 등과 함께 1839년 4월 14일 <양력 1839년 5월 26일> 에 대구 관덕정에서 48세 나이로 참수되었다.

박사의(안드레아)의 아들 소랑(사도 요왕) · 딸 모정과 모열은 나이가 어려서 석방되었는데 아들은 문경 여우목 <문경을 중평리> 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병인박해 때 서울에서 순교했다.

이곳에는 병인박해(1866 ~ 1873) 이후에도 계속 신자들이 살았었는데 1893년부터 동학교도들이 충청도 보은의 장내에 집결하여 교주 최재우의 신원 운동을 위하여 봉기함에

따라 이곳 멩에목에도 동학도들이 점령하는 바람에 신자들은 박해를 받아 사방으로 흩어졌다.

③ 앵무당 교우촌

〈연락처 : 화령성당 054-533-0044〉



(1) 위치와 역사

앵무당은 충북 보은군 마로면 · 속리산면과의 경계와 가까운 곳에 있는데 **상주시 화남면 소재지인 평은리의** 구병산 줄기의 북쪽 골짜기에 산 중턱에 있다. 멩에목이라 전해 온 돌미기 교우촌과는 구병산 능선을 경계로 이웃하고 있다.

언제부터 천주교 신자들이 살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신유박해 이후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 구병산 산자락의 첩첩 산중인 이곳 앵무당과 멩에목 〈돌미기〉에 정착하여 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815년 을해박해 때 백부 김강이 시몬은 원주에서 순교하고, 부친 김 다태오는 귀양을 가고, 나이가 어려 석방된 김사건(안드레아)은 이곳 앵무당으로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포교활동을 하여 영남도회장이 되었다고 한다.

선교활동 중인 1827년 정해박해 때 김사건(안드레아)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상주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상주 진영을 거쳐 대구 경상감영으로 이송되어 심한 문초를 받고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13년간을 더 감옥에서 생활을 했다. 기해박해 중인 1839년 4월 14일(음)에 박사의(안드레아)는 이재형(안드레아)과 함께 대구 관덕정 형장에서 순교하였다. 처음

에 그는 부인 성임과 자녀들과 함께 체포되었지만 부인과 자녀들은 석방되었었다.

앵무당에는 그 후 계속 신자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후에는 동학교도들이 들어와 살았다고 전하는데 근래에는 화전민들이 살다가 철거되고, 현재는 그들이 살다가 떠난 집터만 남아 있다.

④ 잣골 교우촌

〈연락처 : 화령성당 054-533-0044〉



(1) 위치와 역사

상주시 모동면 신흥리 잣골은 수 봉공소와 마주하는 곳으로 주변에는 최양업신부가 사목서간을 작성한 오두재 〈吾道峙〉와 폐룡 신부의 사목중심지인 산막터(골), 내 건너편의 백화산 최고봉인 한성봉(933m)아래의 금돌성(今突城) 안의 보문사 절터 등의 교우촌이 있다.

잣골은 산막 터와 동일한 장소인데 단지 골짜기가 갈라져 있어서 이름을 달리할 뿐이다. 박해시대 때 신자들이 많이 살았던 충북 영동군 황간과 인접해 있고 또한 박해시대 때 교우촌으로 최양업 신부가 잠깐 동안 머물렀던 오두재 〈吾道峙〉와도 가깝다. 폐룡 신부가 병인박해 전인 1857년부터 몇 년간 머물면서 포교활동을 했던 신흥리 산막 터는 같은 마을 같은 골짜기이다.

이곳에 언제부터 신자들이 살기 시작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순교자 신태보(일찍이 이여진(요한) · 정약용(요한) · 정하상(바오로) · 홍낙민(루카)의 아들 홍우송 등과 함께 교

회재건운동과 성직자 영입운동에 앞장섰으며, 교회공동체운동(교우촌 형성)에 선봉자(先鋒者)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리서를 집필하고 필사해 주는 등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였던 자)가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만년에 이곳에 은거하여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1827년 정해박해를 만나 포졸들에게 그 가솔들과 함께 체포된 곳이다.

이곳에 전해내려 오고 있는 구전에 의하면 ‘이곳은 옛날에 신자들이 살았던 곳으로 박해가 일어나자 포졸들이 와서 신자들의 우두머리를 체포하고 죽인 후 그곳에 묻으면서 표적을 남기기 위해서 대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신태보(베드로)는 전주감영에서 1839년 5월 29일 약 70세를 일기로 치명하였고, 그의 며느리 최조이(발바라)는 1839년 기해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홍재영(프로타시오)의 집에 은신해 있다가 체포되어 홍재영 · 이조이 · 오종례 등과 함께 1840년 전주감영에서 순교하였다. 현재 시성시복 준비위원회의 명단에 올라 있다.

⑤ 상주시내의 옥 터 · 관아 · 처형 터

〈연락처 : 남성동성당 054-531-1781〉

(1) 위치와 역사

구한말 상주진영의 옥 터는 현재 상주시 성동동 남문시장 옛 소전결(대구여인숙 포함)이다. 박해시대 때, 이곳 감옥에 갇혀 있는 신자들이 상주목사 겸 영장이 있는 관아〈왕산 남쪽 아래〉로 끌려 나가 문초를 받았는데, 심문을 받는 중에 배교하거나 순교하는 신자들도 많았다.

구전에 의하면, 현재 왕산 바로 앞 남동쪽 큰 팽나무에 신자들이 매달려 문초를 받다가 죽은 신자들도 많았다고 하고, 심문 후에 다시 감옥으로 끌려가서 갇혀있던 중 옥사를 하거나 혹은 사형언도를 받고 형장에서 순교를 했다고도 전한다. 당시 형장은 옥 터 바로 옆인 성동동의 소전 <현 대구여인숙 부근> 과 서문 밖 병정들이 주둔해 있던 병영 <소방사에서-서문동천주교회 부근까지> 이었다.

1827년 정해박해 때는 명에목(돌미기)에서 체포된 박경화 · 박사의와 앵무당에서 체포된 김사건(안드레아) · 안군심(리카르도) 등의 신자들이 모두 상주진영으로 잡혀 와서 문초를 받은 후에 대구의 경상감영으로 이송되어 순교했다.

1866년 병인박해 때는 문경의 여우목과 한실공소와 모전 등 여러 곳에서 체포된 신자들이 상주 진영으로 이송되어 와서 문초를 받고 순교를 했거나, 석방이 되었거나 아니면 성 이윤일(요한)과 한실공소 김 회장 형제 및 청리면 질리사람인 송 아기는 대구의 경상감영으로 이송되어 가서 순교했다. 1866년 병인박해 때 이곳에서 치명한 순교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태순(베드로) · 김 (아우구스티노) · 김 (토마) · 김(아우구스띠노) · 김(베네딕도) · 김(빈첸시오) · 김(프란치스코) · 김 서방(?) · 김 서방(?) · 장 서방(?) · 장 서방의 아내(?) · 김(수산나) · 김(요셉) · 김(베드로) · 모(막달레나) · 박상근(마티아) · 홍(마리아) · 박(막달레나) · 김(안토니오) · 서유형(바오로) · 박(루시아) · 안창규(?) · 안(아오구스티노) · 안(요한) · 이상서(시몬) · 전(사베리오)의 부인(?) · 안(세시리아), 26명

◆이상은 1895년 뮌텔 주교가 발행한 『병인치명 일기』와 『병인순교자 증언록』 참조

⑥ 서산(西山) 화형 터

〈연락처 : 옥산성당 054-532-4507〉

(1) 위치와 역사

상주시 청리면 덕산리에 있는 서산(西山, 509m)은 김천에서 상주로 가는 국도 변에 위치한 청리면 소재지에서 서쪽으로 약 4km 떨어진 들 가운데 삿갓 모양으로 우뚝 솟은 청수하고 아담한 산이다.

이 서산(西山)은 상주 공성면과 외남면 청리면의 접경지역에 있는데 옛날 박해시대 때 이 부근에 신자들이 많이 살았다. 특히 청리면의 율리〈밤갓〉와 이웃의 삼괴리 마을 등에는 많은 신자들이 살았는데 1860년 경신박해와 1866년 병인박해 때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이곳 서산 화형 터 바위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름이 전해지고 있는 순교자는 성순교(세례명 미상)이다. 그는 1859년 경신박해를 만나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는 살고 있던 가실〈현재 낙산 성당 터〉 집을 외가에 맡기고 신자촌인 상주 청리의 율리로 피신하였다가 부근의 서산〈청리면 덕산리〉에서 순교하였다.

⑦ 삼괴리 신앙 고백비

〈연락처 : 옥산성당 054-532-4507〉

(1) 위치와 역사

상주시 청리면 삼괴2리 석단산 아래에 있다. 이 지역에 선 1801년 신유박해를 비롯해서 1827년 정해박해 등 역대



박해 때마다 많은 신자들이 순교를 했다. 특히 신앙고백비에서 있는 상주시 청리면 삼괴 2리와 그 부근의 내서면, 공성면 등지는 옛날 박해시대 때의 교우촌들이 많았다. 청리면 삼괴 2리 마을에는 1866년 병인박해

전부터 김해 김씨 집안의 김복운(金福云)의 아들 4형제 중에 장남인 삼륙(三陸)과 차남인 삼록(三錄)등 형제들이 열심히 천주교를 믿었다. 그러나 병인박해(1866~1973)가 일어나자 다른 형제들은 믿음을 중단해버렸고, 둘째인 삼록(도미니코 1843~1873)만이 끝까지 천주교를 믿었다. 박해 중에는 여러 곳으로 피신을 다니다가 1886년 한불수호조약으로 공식적인 박해가 끝나고 어느 정도 신앙의 자유가 허용될 무렵인 1894~1900년 초에 그와 그 집안의 문중들이 살고 있던 석단산(石壇山) 아래의 현재 청리면 삼괴 2리 안 골짜기의 쌍 바위 중 오른쪽 큰 바위 위에 자기의 믿음을 증거 하기 위해서 「신앙고백비(信仰告白碑)」를 건립하였다. 크기는 높이 127cm, 폭 39cm, 두께 22cm이다.

비문의 내용

가. 앞면

- 1) 十字架 부분 : “天主”라는 2字가 있다. 天主는 ‘하느님’이라는 뜻이다.
- 2) 몸통 상단에는 가로로 2줄의 文句가 있다.
 첫째 줄 : 天主聖敎會 - 천주교는 거룩한 교회이다.
 둘째 줄 : 聖號十字嘉(架) - 거룩한 표시로 십자가를 긋는다.
- 3) 몸통 중간에는 세로로 5段의 文句가 있다.
 1단 : 第一天主恐衛咸 - 천주께서 모두를 지켜주실 것이다.
 (천주를 두려워하기 위함.)
 2단 : 第二敎化皇衛咸 - 교황께서 모두를 지켜주신다.
 (교황을 위함.)
 3단 : 第三主教衛咸 - 주교께서 모두를 지켜주신다.
 (주교를 위함.)
 4단 : 第四神夫(父) - 신부께서 모두를 지켜주신다.
 (신부를 위함.)
 5단 : 第五敎于(友)衛咸 - 교우들께서 모두를 지켜주신다.(敎友를 위함.)
- 4) 몸통 하단에는 2줄의 文句가 있다.
 첫째 줄 : 奉敎人金道明告 - 천주교인 김 도명고 (Dominicus)
 둘째 줄 : 癸卯生 本 盆城(今 金海) - 계묘(1843년) 출생, 본관은 분성(김해).

나. 뒷면

- 1) 상단(세로) : 盆城人 - 김해 김씨를 뜻한다.
- 2) 중간(가로) : 金福云己子四 - 김복운은 자기 자식이 4명 있다.
- 3) 하단(세로)
 1단 : 一子三陸己子四 - 첫째 아들 삼륙은 자기 아들 넷.
 2단 : 二子三祿(聖人道明告)己子三 - 둘째 아들 삼륙 (聖人 도미니코)은 자기 아들 셋.
 3단 : 三子三俊己子二 - 셋째 아들 삼준은 자기 아들 둘.
 4단 : 四子錫周己子一 - 석주는 자기 아들 하나.

⑧ 삼괴리 교우촌

〈연락처 : 옥산성당 054-532-4507〉

(1) 위치와 역사

신양고백비가 서 있는 **상주시 청리면** 관내는 1860년 경 신박해 전에 벌써 이웃인 청리면 율리〈밤 밭〉마을에 많은 신자들이 살다가 1860년 경신박해와 1866년 병인박해 때 포졸들에게 잡혀서 순교를 했다. 1.5km 떨어진 청리면 덕산리의 서산(西山) 화장터 바위에는 1860년 경신박해 때 칠곡군 왜관(달오)의 현 가실 성당 터에 살다가 잡혀간 성순교를 비롯하여 처형을 당한 신자들의 시신을 불태워 버렸다는 구전이 전해온다.

서산은 상주시 공성면·청리면·외남면에 접한 별로 높지 않은 산이지만 그 산 둘레에 탑골과 청계 등 많은 옛 교우촌들이 있다.

1859년경에 당시 이곳에 살던 서상돈(아우그스띠노)의 가정은 부친 서철순이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 외가가 있는 대구 읍내 새방골로 갔으며 서익순·서철순 형제들도 대구 읍내로 이사를 갔다. 또한 문헌상의 기록에는 1866년 병인박해 때 경상도 청내면 질리〈현재 청리면 마공리?〉의 송 이 아기는 대구감영에서 순교를 했다.

교회의 공식적인 통계표에는 1899년에 삼괴정〈청리면 삼괴리〉공소에서 김성학(알렉스) 신부가 판공성사를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3. 안동지구

① 안동의 옥 터

〈연락처 : 송현동성당 0573-859-4213〉

(1) 위치와 역사

안동시 옥동 시장 장터 부근으로 예전에 안동진영 감옥이 있던 자리이다. 1815년 을해박해 때 진보와 영양 우련전 등지에서 체포된 신자들이 안동진영으로 이송되어 이 감옥에 갇혔는데, 문초를 받은 후에 배교를 해서 풀려나거나 신앙을 증거 하여 이곳에서 순교를 했고, 대구의 경상감영으로 이송되어 그곳에서 순교한 신자들도 있다. 이때 치명한 순교자들은 김홍금(명숙)과 그의 아들 장복, 그리고 최 안드레아와 최 마르티노 형제들이다.

또 1839년 기해박해, 1866년 박해 때도 이곳에 살던 신자들이 체포되어 다른 곳에서 순교하기도 했다. 특히 김호연(바오로)은 이곳 안동 출신으로 1830년 문중박해에 의해서 순교하였다. 이렇듯 이 지방은 완고한 유교의 지방이지만 일찍부터 천주교가 전파되어 순교한 신자들도 많았다.

4. 문경지구

경상북도의 최 서북단에 위치한 문경지방은 높고 험준한 소백산맥에 의해 충청북도 괴산군과 단양군·제원군(현,제천시)과 인접해 있다. 그 중 문경과 충청도 경계지역에는 주흘산(1,109m)·조령산(1,107m)·백화산(1,063m) 등의 높은 산들이 있고, 그 산을 넘는 조령(643m)과 이화령(548m)은

옛날부터 경상도에서 한양으로 가는 이름난 교통로로서 술한 전설과 애환이 서려 있다.

또한 문경읍에서 충북으로 통하는 일명 새재라고 하는 조령관문은 옛날 서울과 부산을 잇는 영남대로로 군사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요지였다.

이 지방이 충북과 경계를 이루는 경상도의 관문이면서 산악지대이므로 자연히 일찍부터 신자들이 서울과 충청도에서 박해를 피해 이 지방의 심산궁곡인 한실·건학·여우목 등지에 숨어들어 교우촌을 이루며 살기 시작했다.

「사학징의」에 의하면 1801년 신유박해 때는 경기도 출신인 이철임(여)이 경남 웅천으로 귀양 오는 도중에 문경에서 물고(매를 맞아 죽음)로 순교했다. 또한 조령관문은 최양업 신부를 비롯해서 깔래 신부 등 많은 성직자들이 충청도·경기도를 넘나들며 성사집행을 했던 유서 깊은 곳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일찍 교우촌을 이루며 살기 시작한 곳이 백화산 밑의 한실 교우촌인데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화전민들이 살다간 흔적만이 있을 뿐이다. 1866년 병인박해 직전에는 깔래 신부가 이곳을 중심으로 경상도 서북의 여러 교우촌과 연풍 등 충청도와 경계 지역에 있는 교우촌을 돌아보는 등 모든 신자촌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병인박해 때에는 여우목·건학에 살던 신자들과 함께 많은 신자들이 순교하였다. 박해 후에는 교우촌이 거의 없어지거나 폐허가 되었고, 그 대신 조금 교통이 편리한 먹뱅이와 도탄이·마원 등지에 교우촌이 형성되었다.

① 한실 교우촌

〈연락처 : 가은성당 054-571-6040〉

(1) 위치와 역사



문경시 마성면 상내리 백화산 중턱에 있다. 백화산을 넘으면 충북 괴산군 연풍 순교 터와 원풍리의 고사리의 옛 교우촌이 있다. 이 원풍리의 고사리 교우촌은 바로 조령관문 너머 충북 땅인데, 1791년 신해박해

후에 충청도 내포지방의 신자들이 이 깊은 산골에 숨어 살면서 교우촌을 이루었다.

한실은 경상도 지방의 첫 교우촌인 상주 이안면의 배모기와 사실·저음리 교우촌과는 자양산 넘어 가은읍을 거쳐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있다. 이곳 한실에 처음으로 신자들이 들어 온 때는 1801년 신유박해 후이다. 당시 상주 이안면 배모기에 살던 서광수의 아들인 서유도의 가족들이 이곳 한실로 피난 와서 살았다. 1812년과 1813년 사이에 충청도 홍주와 연산의 황 바오로·원 베드로 등이 공주에서 순교를 할 때, 이곳 한실에 피난 와서 살던 서유도의 부인 전주 이씨가 순교를 했다.

칼래 신부는 1865년 12월 1일〈양력 1866년 1월〉에 부근의 건학〈문경군 동로면 명전리〉 교우촌에 성사를 주러 갔을 때, 마침 그 몇 주일 전에 공주에서 순교한 전 사베리오의 부인과 아들이 미사에 참례하고 순교자를 위해서 미사를 청했다. 그 후 곧 병인박해(1866~1873)가 시작되어 신자들은 한실과 백화산을 넘어 연풍 등지로 쫓겨 다녔다. 병인박해 때 상주아문에는 각 교우촌에서 체포되어 이송되어 온 신자 19명이 처형되었다. 그 가운데 한실에서 체포되어 순교한 14명의 신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태순(베드로) · 김 아우구스티노 · 김 토마 · 김 아우구스티노
· 김 안토니오 · 김 베니딕도 · 김 빈첸시오 · 김 프란치스코 ·
김 생원 · 장 서방 · 장서방 부인 · 김 요셉 · 김 베드로 · 모
막달레나, 14명

(1895년 뮌텔 주교의 병인순교자 명단 참조-상주 옥 터
순교자 명단)

② 여우목 교우촌

연락처 : 문경성당 054-572-0531>



(1) 위치와 역사

문경시 문경읍 중평리 여우목에 있다. 험준한 소백산맥의 본산맥인 대미산(911m)을 경계로 하여 충북 단양군과 경계를 이루는 문경시의 북단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부근의 교우촌인 건학과 부력이와는 산길로 불과 20~30리 내에 있다. ‘여우목’이란 말은 동로면과 경계를 이루는 운달산의 높은 고개가 마치 여우의 목과 같다고 해서 ‘여우목 <여목>’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곳에 처음 천주교 신자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1827년 정해박해 후부터 1839년 기해박해 사이에 순교자 박경화(바오로), 순교자 박사의(안드레아)의 아들인 박 요한이 경상감영에서 석방된 후 이곳에 정착했다. 또한 충청도 홍주에서 태어난 이윤일(요한) 성인이 박해를 피해 상주 갈골로 이사를 왔다가 다시 당시 외교인들만 살고 있는 여우목으로 이사를 하였다.

1839년 기해박해 후에 서치보(요셉)은 이곳에서 1841년에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서인순(시몬)과 형제들은 풍기를 거쳐 상주와 경산 모개골로 이사를 갔다. 1866년 병인박해 때는 박 요한과 일부 신자들은 황간 상촌으로 가서 충주 포교에게 잡혀 충주 혹은 서울에서 순교하고, 성 이윤일과 이곳의 많은 신자들은 문경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상주와 대구에서 순교했다.

그 후 병인박해(1866~1873)가 끝나자 그 동안 체포되지 않고 사방으로 흩어졌던 신자들이 다시 모여들어 교우촌을 이루며 살았다. 그러나 1886년 한불수호조약 이후 신앙의 자유가 생기고, 1910년 한일합방이 되자 신자들은 교통이 불편하고 살기가 어려운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이윤일 성인 등 30여 명의 신자들이 체포되어 갈 때 여우목 밑의 큰 마을에 살던 베로니카란 80여세 된 할머니도 함께 포졸들에게 붙잡혀 가다가 포졸들이 “왜 노파는 천주교를 믿지 않겠다고 한 마디만 하면 놓아 줄 텐데 그냥 함께 따라 가느냐?”하고 묻자 “배교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자꾸 포졸들이 편잔을 주므로 그 할머니는 “살아 있는 천주님을 어떻게 죽였다고 할 수 있나?”하면서 화를 내자 그만 포장도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단칼에 할머니의 목을 날려 순교를 하게 했다고 전하는데, 현재 그 장소는 마을의 이정표가 있는 큰 소나무들이 서 있는 부근이라고 한다.
<증언자 감리교회 집사>

이윤일(요한) 성인은 이곳에서 몇몇 신자들과 함께 외교인 30여 호를 천주교로 귀화시켜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박해가 일어났을 당시 그의 나이는 52세였으며 1867년 대구 남문 밖 관덕정에서 순교하였다. 1984년에 103위 순교성인으로 시성되었다.

③ 마원 성지와 순교자 박상근(마티아) 묘소

〈연락처 : 문경성당 054-572-0531〉



(1) 위치와 역사

문경시 문경읍 마원 1리에 있다. 본래 문경군 읍내면의 지역으로 조선시대 마포원(馬包院)이 있었으므로 마포원, 또는 마원, 마판이라고 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신동면 우어리 일부를 병합하여 마원이라 하고 문경군에 편입하였다.

마원에서는 병인박해(1866~1873) 때 문경 출신인 박상근(마티아) 등 30여 명의 신자들이 충주·상주·대구 등지로 압송되어 순교했다.

박상근은 문경에서 아전(하급 관리)였다. 그는 평소에 숙모 홍 마리아와 친척들은 물론 이웃 사람들에게 열심히 천주교 교리를 가르쳤다. 뿐만 아니라 비신자 어린이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들으면 언제든지 그곳으로 달려가서 대세를 주곤 하였다. 1866년 병인박해 때 그와 칼래(N. Calais, 美) 신부와의 일화는 실로 눈물겹다. 칼래 신부의 눈물의 이별 뒤, 박상근(마티아)은 얼마 후 숙모 홍 마리아와 친척 박 막달레나와 함께 체포되어 상주로 끌려갔다. 그는 다른 교우들과 함께 1867년 1월〈음력 1866년 12월〉에 교수형을 당하였다. 그의 나이는 30세였다. 순교하기 직전에 그는 성호를 긋고는 예수 마리아를 불렀다고 한다. 순교 후, 그의 가족들이 그 시신을 찾아다 고향에 안장하였다.

④. 최양업(토마) 신부의 사적지

〈연락처 : 문경성당 054-572-0531〉



(1) 위치와 역사

경상북도 문경읍 진안리 오리 터이다.

(2) 최양업 신부의 생애 및 포교활동

최양업(崔良業, 토마, 1821 ~ 1861) 신부는 증조부 때부터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구교우 신자 집안에 태어났으며 부친 최경환과 모친 이성례는 1839년 기해박해 때 순교했다.

그는 1836년 모방(maubant)신부에 의해서 최방제(프란치스코 사베리오) · 김대건(안드레아)과 함께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중국 마카오로 가서 신학 공부를 한 뒤 한국 교회에서는 김대건 신부에 이어서 두 번째로 1849년 4월 15일에 중국의 강남 교구장 마레스카(maresca) 주교에게 사제 서품을 받았다. 입국 시도 다섯 번째 만인 1849년 12월 변문을 떠나 입국에 성공하였다. 1859년 말부터 1860까지는 경신박해를 맞아 경남 언양의 간월산 동굴에서 3개월간 피신을 하였고, 1860년 8월 박해가 끝난 후, 밀린 사목방문활동을 재개하였다.

1861년 6월에 서울에 있는 베르뇌 주교에게 사목 보고를 하러 서울로 가다가 문경새재와 이화령 고개의 갈림길인 문경시 진안리의 오리터 주막집에서 약주 몇 잔과 황육〈쇠고기〉을 먹고 크게 병을 얻어 창평 이씨(李氏)약국집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과로로 몸이 쇠약한 데다 장티푸스의 합병증

으로 기어이 6월 15일 40세의 나이로 선종하였다. 선종하기 8, 9시간 전 그곳에서 170~180리 떨어진 배론신학교의 푸르티에(pourthie)신부가 달려와 병자성사를 주었는데, ‘예수, 마리아’의 두 이름을 되풀이하며 부르다가 선종하였다. 푸르티에 신부의 지도로 운구하여 몇 달 뒤에 베르뇌 주교의 집전으로 배론 뒷산에 안장을 했다.

최양업 신부가 포교활동에 전념하였을 당시 동학(東學)의 창시자인 최재우도 최 신부와 같은 경주 최씨의 먼 집안으로 한 때는 그에게 천주교 교리를 배웠다고 전하고 있다. 그는 포교활동 뿐 아니라, 저술활동에도 힘을 쏟아 19통의 〈1통은 유실〉 라틴어 서한을 썼으며, 그 중에 상주의 오도티에서 2통, 선산 안곡에서 2통, 경남 언양의 간월에서 1통 등 5통의 서한지를 경상북도에서 썼다. 또한 순교자들의 자료 조사와 함께 『한국순교자전』을 라틴말로 번역하고,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향가·사신창가·공심찬가 등 19편의 시가 노래도 지었고, 신자들에게 신앙의 지식을 올바르게 알려주기 위해 『성교요지문답』과 『천주성교공과』 등을 편찬하는데 참여하였다.

⑤ 건학 교우촌

〈연락처 : 문경성당 054-572-0531〉



(1) 위치와 역사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 점 터에 있다. 원래 예천군 동로면 지역으로 1895년 구한말 행정구역의 개편 때 문경군으로 편입되었다. 문경시의 최북단에 위치하여 충북

단양군 대강면과 제원군(현,제천시) 덕산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사방이 높고 험준한 문숙봉(1,162m) · 황정산(1,077m) · 대미산(964m) · 천주봉 · 공덕산 등으로 둘러싸인 지극히 깊은 산중이며, 건학(乾鶴)이란 마을 이름도 마을 주위에 있는 산의 형상이 마치 학이 하늘로 올라가는 형상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교우촌이 형성 된 것은 1801년 신유박해 전후가 아닌가 생각된다. 문헌상 기록은 1827년 정해박해 때 바로 이웃 고을인 충청도 단양군 대강면 남천리의 가매기에 살던 순교자 박경화(바오로) 가정의 상주 명에목 <보은군 속리산면 머미기, 지금은 돌미기로 본다.> 으로 이사한 몇 주일 후에 체포되어 상주진영을 거쳐 대구 경상감영으로 이송되어 옥사했고, 아들인 박사의(안드레아)는 대구 관덕정에서 순교했다. 또 1866년 병인박해 몇 달 전인 1865년 가을에 이 마을에 살고 있던 건학공소회장 전 사베리오와 여우목 성 이윤일 요한 회장의 아들인 이 시몬이 도둑 떼의 발고로 **부력이** <충북 제원군 덕산면 월악리 부력이> 공소에서 체포되어 예천 관아로 끌려가 충청도 공주감영으로 이송, 심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병인박해 직전인 1866년 1월 26일에 순교하였다.

6. 순교자 박상근 마티아



박상근 마티아 시복·시성 기도문

순교자들의 의연한 삶으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시는 하느님 아버지,
이 땅의 수많은 순교자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과 진리를 증거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문경의 순교자 박상근 마티아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갖 장애와 위험을 무릎 쓰고 선교사를 도왔으며,
확고한 믿음으로 온갖 회유와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한 생명 다 바쳐서 하느님을 섬겼사오니
그에게 시복·시성의 영광을 허락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순교자 박상근 마티아의 삶을 본받아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을 비울 줄 알고
하느님의 사랑과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전구와 도움으로
믿음에 대한 굳은 신뢰와 희망을 갖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1999.9.14

① 박 상근 마티아 생애 (1837-1867)

박상근 마티아는 경상북도 문경에서 아전(하급관리)을 지낸 사람으로, 중년에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여 교리의 가르침을 착실하게 지키면서 생활하였다. 또 관청에 있었으므로 신자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마티아는 평소에 숙모 홍 마리아와 친척들은 물론 이웃 사람들에게 열심히 천주교 교리를 가르쳤다. 뿐만 아니라 비신자 어린이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들으면, 언제든지 그곳으로 달려가서 대세를 주곤 하였다. 이후 그는 칼래(N.Calais, 姜) 신부로부터 성사를 받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다.

1866년 병인박해가 일어난 뒤, 마티아는 3월 중순경 좁쌀을 사기 위해 칼래 신부가 숨어 있던 한실(현 경북 문경시 마성면 성내리)로 갔다. 그런 다음 칼래 신부와 함께 문경읍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와서 신부를 숨겨 주었다.

3일 후 마티아는 칼래 신부와 둘이서 새로운 은신처를 찾기 위해 다시 한실로 가야만 하였다. 이때 칼래 신부는 한실 교우촌이 보이는 산에 오른 뒤 마티아에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그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마티아는 울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신부님 곁을 떠나다니요. 혹시 한실이 습격을 당했다면 신부님께서서는 어디로 가시렵니까? 인신하실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부님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신부님께서 이 험한 곳에서 돌아가신다면, 저도 기꺼이 따라 죽겠습니다.”

결국 칼래 신부의 명에 순종하여 그와 이별하고 집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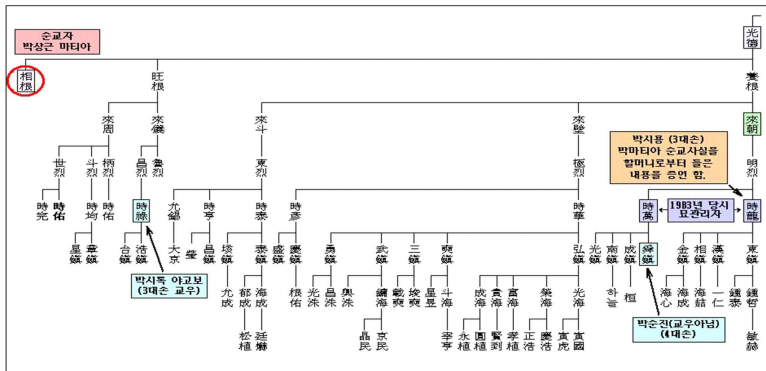
돌아와 있던 박상근 마티아는, 얼마 후 숙모 홍 마리아와 친척 박 막달레나와 함께 체포되어 상주로 끌려갔다. 이윽고 문초와 형벌을 받게 되자 그는 “천주교를 봉행한다”고 명백하게 신앙을 증거하였으며, 어떠한 위협과 형벌에도 굴하지 아니하였다.

그때 상주 옥에는 문경 인근에서 끌려온 교우들이 많이 있었다. 마티아는 형벌을 받고 옥으로 돌아간 후에는 함께 있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자”고 권면하였고, 많은 교우들이 여기에 용기를 얻어 순교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다가 마티아는 마침내 관장의 명에 따라 옥중에서 교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그 때가 1867년 1월(음력 1866년 12월)로, 당시 그의 나이는 30세였다.

순교하기 직전에 마티아는 성호를 긋고는 예수 마리아를 불렀다고 한다. 그리고 순교 후에는 그의 가족들이 그 시신을 찾아다 고향에 안장하였다.

② 박상근 마티아 순교자 가계도 (4대우손인 박순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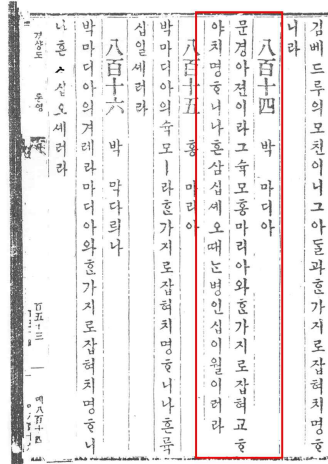
순교자 박상근 마티아의 가계도
(함양박씨 편상사사공파 용복종중 광덕후손 계보도)



③ 박상근 마티아에 대한 교외 안의 공식 기록

(1) 『치명일기』, 정리 번호 814번

치명일기 (814-16호)



박(상근) 마티아

문경(聞慶) 아전이라. 그 숙모 홍 마리아¹⁾와 한가지로 잡혀 교(絞)하여 치명하니, 나이는 30세요, 때는 병인(1866) 12월(양력 1867년 1월)이러라.²⁾

(2) 『병인박해 순교자 증언록』, 정리 번호 43번³⁾

『치명일기』 811의 김 요셉, 812의 김 베드로, 813의 모 막달레나, 814의 박(상근) 마티아, 815의 홍 마리아, 816의

1) 홍 마리아 : 『치명일기』, 정리 번호 815번.

2) 박상근(마티아)의 무덤은 1983년 초 안동교구 김옥태(레오) 신부에 의해 박씨 문중 산에서 발견되었으며, 1985년 9월 15일 현재의 위치(경북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에 새 무덤이 조성되고 유해가 안치되었다(<http://www.acatholic.or.kr>).

3) 『병인치명사적』 권1(1923. 2. 2), 56쪽과 동일.

박 막달레나 이 여섯 사람은 다 함께 교한 치명이니, 그때 옥사장 황유록이가 다 거행하고, 또 치명시에 성호경·예수·마리아 혹 무슨 말씀 많이 하되, 못 알아듣던 말을 자세히 다 하옵더이다.

8인4)의 치명 사정은 동래 초량(草梁) 사는 박 프란치스코 증인.

(3) 『병인치명사적』 권3(1923. 6. 6), 56쪽⁵⁾

병인치명사적 권3 56쪽
 박막달레나 이 여섯 사람은 다 함께 교한 치명이니, 그때 옥사장 황유록이가 다 거행하고, 또 치명시에 성호경·예수·마리아 혹 무슨 말씀 많이 하되, 못 알아듣던 말을 자세히 다 하옵더이다.

병인치명사적 제 3 권 56 쪽

박(상근) 마티아는 문경 아전이라. 중년에 입교하여 규구(規矩)를 타당히 지키고, 아전을 다니므로 교우의 어려운 일을 많이 돌아보고, 숙모(즉 홍 마리아)를 가르치고, 외인 영

4) 위의 여섯 사람 및 『치명일기』, 정리 번호 183번의 박 사도 요한, 810번의 김 수산나.
 5) 『병인치명사적』 권4(1923. 6. 7), 31쪽 ; 『박순집 증언록』 권3, 정리 번호 129번과 동일.

해(嬰孩) 임종 대세를 힘쓰더니, 병인년에 잡혀 상주(尙州) 진영에 가 추월(推闕)할 새, 성교함을 명백히 말하매 형벌도 과히 당하지 아니하고, 혹 실망하는 이 있으면 도리를 권화 하니 힘입은 자 많더라. 교하여 치명하니 나이는 30세요, 때는 병인 12월이러라.

경산 모과골⁶⁾ 박주현이가 기록하옵니다.

(4) <칼래 신부의 1867년 2월 13일자 서한>⁷⁾



강 신부님 : 경상북도의 사도
(1860-1866년 11월)

(1866년) 3월 15일경 문경읍에 살던 교우인 박(상근) 마티아와 예비 신자였던 그의 매형이 조를 사러 저희 마을(즉 한실 교우촌)⁸⁾에 왔습니다. 저희는 짧은 모임을 갖고, 이것이 하느님께서 저희를 다른 곳으로 한 3~4일 정도 피신하도록 마련하신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문경읍에는 불과 15명의 교우들만 있었고, 이들은 신분을 감춘 채 살고 있어 인근에 널리 알려진 교우촌보다 훨씬 안전한 은신처가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저를 그의 집에 모시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박 마티아의 매형인) 예비 신자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행여 그의 집에서 붙잡히기라도 한다면 그의 목숨이 달려 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심을

6) 모과골 : 현 경북 경산시 남천면 산전리.

7) 위의 서한은 칼래 신부가 파리의방전교회 신학교의 알브랑(Albrant) 교장 신부에게 보낸 서한이다(파리 외방전교회 고문서, Vol. 579, pp. 1270~1273).

8) 한실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성내리. 칼래 신부는 경상도의 교우촌들을 순방하던 도중 병인박해 소식을 듣고는 한실 교우촌에 은거하였다.

했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세 명은 밤 11시쯤 길을 나섰습니다. 희미한 어둠 덕분에 길가에 있는 외교인 마을 4~5 곳을 무사히 지났으며, 새벽 2시쯤 문경 읍내로 들어와 마티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머물 방은 아무도 쓰지 않던 빈방이라 큰 항아리와 가구들이 가득했는데, 이 물건들을 차곡 차곡 쌓아 제가 눕기에 충분한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박 마티아와 그의 매형은 양반은 아니라서 조선의 풍습에 따라 그들의 집에는 누구나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반면 양반의 집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선 밖에서 부른 다음에 주인이 나와 응접실 구실을 하는 별도의 방(즉 사랑채)으로 손님을 모십니다. 이처럼 양반의 집에서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의 집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마티아의 집도 군손님들이 거의 종일 드나들었습니다. 저는 행여 누군가가 제 방문을 열지는 않을까 두려워 줄곧 방문을 잠가두어야 했습니다. 또 행여 제가 식사를 하는 동안 누군가가 제 식기 소리를 들을까봐 나무로 된 식기로 먹었습니다. 심지어 코도 소리내서 풀지 말고, 기침도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였고, 저도 그 같은 지시를 다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기침만은 어쩔 수가 없어서 계속 기침이 나왔습니다. 이는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제 방이 습한 데다가 여전히 매우 추운 때임에도 군불을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온갖 제약 속에서 둘째 날 밤을 보내던 중 저는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 방문 잠그는 것을 깜박 잊었습니다. 밤 10시경 제가 어둠 속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 하나가 제 방문을 열고는, 예전에는 아무도 없다고 알았던 방에 누군가가 있음을 보고 놀라하며 3~4분 정도 저를 응시했습니다. 이따금 그는 좀더 가까이 다가와 보려는 듯 고개를 앞으로 내밀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

음 그는 이내 아무 말 없이 가버렸는데,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기침을 한 탓에 것처럼 불쑥 문을 열었을 겁니다.

11시 혹은 자정 무렵 모두가 물러간 뒤 저는 마티아를 불러 떠나려 하니 붓짐을 챙겨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어디로 가시려고요? 이곳과 인근 사방 수십 리 안에는 신부님께서 피신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이보게,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실 걸세”라고 대답해주었습니다. 방금 일어났던 일을 그에게 들려준 뒤, 저는 그에게 홀로 살며 신심이 깊은 56세 가량의 과부인 여교우를 찾아가 하루만 저를 재워줄 수 있는 지 알아보라고 일렀습니다. 그 다음날 밤에는 다른 곳으로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집을 택한 이유는 읍의 다른 교우들은 저를 은신시켜 줄 처지가 못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답이 올 무렵 마티아는 황급히 돌아와 심히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그곳에 가시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신부님이 이곳에 있다고 말하자 그 여교우는 두려움에 떨면서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한 친구를 만났는데, 포졸들이 오늘 중으로 저를 붙잡으러 올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말하기를, “한실로 돌아갑시다. 그러나 날이 밝기 전에 절반도 못갈 터이니 차라리 산꼭대기로 가로질러 갑시다. 그렇게 돌아가면 길가에 있는 모든 마을들을 피해갈 수 있고, 저녁이면 한실에 도착할 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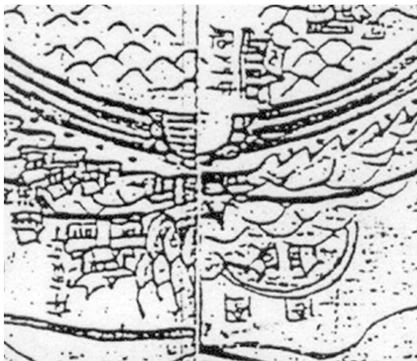
우리가 문경을 떠난 것은 참 잘한 일이었습니다. 문경읍의 포졸들이 우리가 도착했다는 것을 알고는 말들이 많았고, 그들이 저를 붙잡으러 왔을 때는 이미 제가 떠난 뒤였습니다.

동이 틀 무렵 마티아와 저는 숲이 우거진 산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먹을 거라고는 마른 과일(곶감인 듯)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점심때가 지나도록 저희는 줄곧 산을 탔습니다. 마티아는 도시에서만 지내온 터라 고된 산 타기에는 익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산을 내려올 때 자주 넘어져 그가 얼마나 지쳐있는지 여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오쯤 깊은 골짜기에 다다랐고, 산에서 물이 흘러 내려오는 개울가에 앉았습니다. 저희 이마에서는 땀이 비 오듯 쏟아졌으며, 둘 다 허기와 갈증이 차 올랐고, 피곤에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저희는 땅에서 막 싹이 움트기 시작한 야생초 몇 뿌리를 캐내 갈증을 풀었으며, 저는 마티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20리만 더 가면 한실이 내려다보이는 산꼭대기에 닿을 테고, 어느 산봉우리에서도 그 산을 알아볼 수 있을 터이니, 나는 이 길을 거뜬히 갈 거요. 자네는 너무 지쳤으니 자네가 알고 있는 이 근처 마을을 찾아 끼니를 들어요.” 그러자 이 인정 많은 교우는 체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신부님, 제가 어찌 초행길이신 이 산에 신부님을 홀로 두고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에 결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행여 한실에 아무도 없으면 어디로 가시려고요? 신부님께서 피신할 곳이 없을 터인데. 거듭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신부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저도 갈 겁니다. 신부님께서 이 험한 곳에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저는 참으로 기쁘게 신부님과 함께 죽을 겁니다.” 이상이 저희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간 자기 희생의 다툼 중 이 헌신적인 교우가 했던 말입니다. 그의 말은 옳았습니다. 제가 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 것도 먹지 못한 채 밤까지 저를 따르기는 불가능해 보였을 뿐만 아니라, 내심 저는 더는 물려서선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저를 너무도 감동시킨 이 사람에게 명령이라는 방법을 택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티아, 내 말대로 할 것을 명하겠네. 자네가 가져온 마른 과일 절반을 챙기고 나머지 절반을 내게 주게. 그리고 자네 신부인 내 말을 따르게.” 이 말에 그는 저를 바라보며 울기 시작했고, 저는 고향을 쳤습니다. 사실 제 마음도 비수에 찔린 듯 아팠고, 저 또한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저희 둘은 함께 울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희를 지켜보고 계셨으며, 모든 것을 당신 뜻대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몇 마디 말을 나눈 뒤 저는 혼자 떠났습니다. 그가 멀리 있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울고 있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눈을 제게서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산 하나가 나오면서 제 시야에서 그가 사라졌고, 저는 하느님께 저를 맡기고 줄곧 걸었습니다. 저는 길을 따라 걷지 않고 가장 짧게 질러가는 쪽을 택해 걸으며, 한실의 산들을 시야에서 놓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⁹⁾

9) 이후 칼래 신부는 ‘한실 교우촌 → 문산 교우촌(현 경북 상주시 사벌면 퇴강리) → 한실 교우촌 → 연풍 → 한실 교우촌’을 거쳐 진천 삼박골 교우촌(현 충북 진천군 백곡면 양백리)에 도착해서 머물다가 5월 말경에는 자신의 거처가 있던 목천 소학골 교우촌(현 충남 천안시 북면 남안리)으로 갔다. 그리고 1866년 10월에 조선을 탈출하여 중국으로 건너갔다.

④ 박상근 마티아 순교지인 상주 관아.옥터에 대한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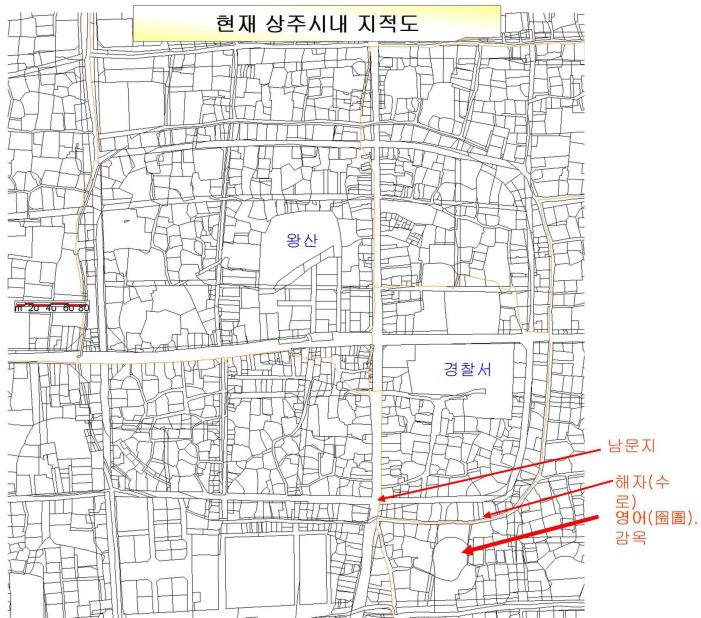
⑤ 박상근 마티아 순교자 묘소 확인 및 발굴, 이장

1. 순교 및 안장

박상근 마티아 순교자는 상주 감옥에서 교수형으로 순교하였으며(1867년 1월(음력 1866년 12월) 당시 그의 나이는 30세였다.) 순교 후에 그의 가족들이 그 시신을 찾아다가 고향 문중산(경북 문경시 문경읍 마원1리)에 안장하였다.

2. 교회가 순교자의 묘를 알게 된 경위

순교자의 묘를 알게 된 것은 당시 함창 본당 김옥태 신부가 문경 본당을 방문하였을 때 당시 본당 신부였던 노광명 로제리오 신부(빠리외방 전교회 소속)로부터 마원 공소교



우들이 순교자의 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어 공소를 방문하고 그 묘의 후손인 박시록(야고보)형제를 만나 문의하였다. 박시록 야고보 형제로부터 신자가 아니었던 박시용(朴時龍 3대손)을 소개 받아 그분의 증언을 통해 박씨의 문중산에 순교자의 묘로 전해 내려오는 버려진 묘가 순교자 박상근 마티아의 묘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또한 그 당시에 신자는 아니었던 박시만(3대손)씨가 별초를 하면서 묘를 관리해왔다.

그때 김옥태 신부는 박시용(3대손)씨로부터 “그 묘는 증조 할아버지 되는 상근씨 묘인데 소년시절에 할머니의 말씀이 ‘그 할아버지는 교 믿다가 잡혀 돌아가신 분이다. 현감이 교를 아니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으나 내가 믿는 것을 왜 안 믿는다고 하느냐. 나는 죽어도 믿는다고 해서 잡혀 가셨다.

삿갓을 쓰고 잡혀가는 것을 보았다. 그분은 글 좋고 구변 좋고, 인물도 참 좋았는데 미성으로 돌아가셨다.’고 하시면서 할머니께서 늘 애석하게 여기셨다.”고 하셨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3. 묘지조성

문경 지구는 1983년 겨울 문경 지구 사목협의회 때 순교자 박상근 마티아의 묘로 확실히 되는 문경 마원 1리의 버려진 묘를 새로 단장하고 신자들로 하여금 순교자의 묘소를 순례케 함으로써 신앙을 북돋울 수 있도록 순교 성지를 조성하기로 결의하였다. 우선 후손들의 양해를 얻어 묘 발굴과 이장에 합의하고 백화산 아래에 위치한 마원 1리가 선조들의 발길과 숨결이 스며있는 곳으로 이 지역이 성지로 뜻깊은 장소라 판단하여 장소를 물색하다가 마을 어귀에 있는 신현옥 시리노 신부(대구교구소속)의 조카 땅 임야 1,800여평을 매입(마원1리 600-1번지)하고 1985년 부활절 이후부터 정지작업, 축대공사, 잔디이식작업, 석물(둘레석, 비석, 제대, 상석 등)공사, 화장실 공사를 하나하나 진행해 왔다. 한편 성지 조성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1984년도에 문경지구 6개 본당이 두 차례씩 특별 헌금을 실시하였다. 교구에서도 1985년 순교자 축일(9월22일)의 교구 내 모든 본당 헌금을 성지 사업비로 쓰기로 결의하였다.

4. 묘 발굴 및 이장

1985년 9월 9일 오전에 당시 사무처장이었던 김재문 이나시오 신부, 사목 국장이었던 조종울 벨라도 신부, 조창래 빈첸시오 신부, 김옥태 레오 신부, 오성백 요아킴 신부와 후손들(박시록 야고보(3대손)과 박순진(4대손)) 그리고 정형외

과 전문의 등과 함께 분묘 발굴 작업과 함께 유해 검사가 있었다.

당시 발굴 작업에서 치아 16개, 좌우 상하 박골, 좌우 대퇴골, 좌우 하퇴골이 발굴되었습니다. 그 때 발굴 작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이 확인 되었습니다. 키가 170cm정도의 그 당시 장대한 남자의 뼈라는 점과 죽음이 정상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이든 사형을 당한 사람의 시신은 바로 놓지 않고 뒤집어서 묻는 풍습이 있었는데 박 마티아 역시 그렇게 뒤집어 매장되었고 국법이 금하는 천주교를 믿다 사형에 처해졌으므로 역적죄에 해당하는 중죄인이었습니다.

묘를 발굴한 후 문경지구는 유해를 본당별로 순회하며 순교현양 성시간을 가진 후(9월9일 함창본당, 10일 모전본당, 11일 점촌본당, 12일 주평본당(현 신기본당), 13일 가은본당, 14일 문경본당) 1985년 9월 15일(주일) 당시 교구장이셨던 두 봉 레나도 주교의 주례 하에 순교자 현양 대회 및 이장식을 가졌다.

(밭굴 때의 사진)

현재의 성지에서 바라본 백화산 전경



좌로부터 김옥태 신부님 불명여자, 삼종고모(박시록의 누이:3대손), 삼종고모(박시록의 누이:3대손), 삼종숙모(박시록의 처:3대손), 숙부(박시용:3대손), 삼종형(박창진), 종숙부(박시석), 종조부(박영복), 박순진(문경시청)
(박순진 씨가 자신의 입장에서 가족관계를 설명해 준 내용임)

숙부(박시용)









⑥ **박상근 마티아 시복시성 연장 방문 조사**(2006년 2월17일(금))
 (방문단 : 박정일 주교, 박동균 신부, 류한영 신부, 장 글라라)



루손인 박승진의 증언 청취



조사단과 질의 응답



7. 도보 성지 순례 기도

***교구40주년 도보 성지 순례에 참여하는
교우들이 받게 되는 전대사***

-사도 바오로 탄생 2000주년 특별 전대사-

(유효기간 : 2008년 6월 28일-2009년 6월 29일)

1. 모든 신자는 각자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통하여 정화되고 영성체를 한 후 로마 성 바오로 대성전을 경건하게 순례하고 교황의 뜻에 따라 기도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2. 모든 신자는 전대사의 일반 조건(고해성사와 영성체, 그리고 교황의 뜻에 따른 기도)을 올바르게 이행하고, 죄로 기우는 온갖 성향을 끊어버리며, 공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를 공경하는 거룩한 예식이나 신심 행사에 참여하면 역시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바오로 해를 장엄하게 시작하고 마치는 날에는 모든 성당에서 전대사가 가능하며, 특별히 우리 안동교구에서는 이 기간 동안에 놓은 수련원과 지구에서 하는 '다마스쿠스 체험 1일 피정'에 참여하고 그 미사에 참례하는 신자는 전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교구 40주년 도보 성지순례'에 참여하는 교우들도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① 성지순례를 시작하면서 (성당에서 혹은 차 안에서)

<안내> : 우리는 지금 안동교구 설정 40주년을 맞이하여 선조 신앙인들이 걸어 온 발자취를 따라 걸으려고 합니다.

1775년 농은 홍유한 선생께서 이곳 안동교구 지역으로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시다가 1784년 이 땅에 교회가 창설된 다음 해인 1785년에 선종하셨고, 바로 그 해에 서광수 일가가 이 지역에 들어옴으로써 본격적으로 복음의 빛을 쬌리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의 선조 신앙인들은 무려 100년 동안이나 크고 작은 박해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1791년 신해박해, 1801년 신유박해, 1815년 을해박해, 1827년 정해박해, 1839년 기해박해, 1846년 병인박해, 1859년 경신박해, 1866년 병인박해를 비롯하여 문종과 향리의 각종 박해를 합하면 탄압의 수는 실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선조들이 그렇게도 무자비하고 모진 박해를 견디어 내면서도 꿋꿋하게 지키고 또 우리에게까지 그 신앙을 전해주면서 걸어가신 길을 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숨어서 걸어가신 그 길을 이제 우리는 햇빛 아래 당당하게 걸어 갈 수 있음은 다 그분들의 피 흘림(순교) 덕분이라고 여겨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곧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신앙선조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총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순례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분들의 삶을 거울로 삼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져보는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09년 6월29일 이전에 순례를 할 경우 다음의 글을 함께 읽어 줍니다 - 그리고 이 순례에 참여하는 사람은 '바오로 해'에 받게 되는 전대사의 큰 은혜도 받게 됨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순례여정이 되도록 합시다.) 먼저 '교구 40주년 기도'를 바칩시다.

교구 40주년 기도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 교구에 끊임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의 복음화와 생명 문화의 터전이 되도록
불러 주시고 함께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고
성인들 안에서 주님 사랑을 배우며
저희 자신과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성화되어
언제 어디서나 기쁘고 떳떳하게
주님 부활의 증거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님,
교구 설정 40주년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당신의 도우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
이 터에서 열린 마음으로 소박하게 살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나누고 섬김으로써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구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② 차 안에서

[1] 묵주기도

(묵주기도 신비는 전례시기에 맞는 신비를 선택하여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완약의 신비

1.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2.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3.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4.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5. 마리아께서 잃으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빛의 신비

1.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2.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3.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4.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5.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고통의 신비

1.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2.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3.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4.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5.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묵상합시다.

영광의 신비

1.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2.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3.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4.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심을 묵상합시다.
5.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후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시작성가 : 238번 사모신 마리아

- 1단 지향 : 북부지구, 동해지구를 일구었던 신앙 선조들과 지구 공동체의 일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2단 지향 : 안동지구, 의성지구를 일구었던 신앙 선조들과 지구 공동체의 일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3단 지향 : 상주지구, 문경지구를 일구었던 신앙 선조들과 지구 공동체의 일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4단 지향 : 문경의 순교자 박상근 마티아의 시복시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5단 지향 : 40주년을 맞는 안동 교구가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아 사랑과 일치의 공동체를 이루어 더 넓게 더 깊게 지역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마침성가 : 236번 사랑아울 어머니

[2] 칼래 강 신부님의 전교 수기를 통해서 본 외국 선교사들의 활동과 당시 교우들의 신앙 생활 모습

(묵주기도 후 아래의 내용들을 읽으면서 선조들의 삶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㉞ 먼저 당시 칼래 강 신부님이 속해있던 파리 외방 전교회 신학교에서 선교사의 길을 준비하는 신학생들이 파리외방 전교회 신부님들의 순교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 선포를 위해 순교를 각오했던 그분들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1866년 9월, 조선 박해에 관한 서한들이 파리외방전교회 신

학교에 도착했을 때, 신학생들은 머동(Mevdon)에가 있었다. 저녁때 교장 신부님께서 신학생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조선에서 주교님 두 분과 신부님 일곱 분, 도함 아홉 분이 며칠 간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피를 쏟았다고 하셨다. 이 영광스러운 소식을 듣고 신학생들은 마음에서 우리나라오는 환성을 질렀다. 즉시 그들은 성모상을 덮고 있는 큰 단풍나무들 가지에다 촛불을 켜 놓고 감사가(Te Deum(떼데움))를 합창하고 나서, “순교자들의 여왕이시여,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를 9번이나 외쳤다.

㉠ 칼래 강 신부님의 문경 한실 지방에서의 전교활동에 대한 수기

(상해에서 1867년 2월 13일에 파리외방 전교회 교장 신부님께 보낸 편지 중에서 한실에서의 삶을 기술한 내용입니다)

㉡ 박예의 칼날을 피어가며 한실에서 선교하신 신부님의 삶과 한실 교우촌의 모습

공경하올 교장 신부님,
(중략)

그 때(1866년) 저는 서울에서 400리, 그리고 이틀 전에 성사를 집전한 문경읍에서 30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마을은 한실인데, 경상도 문경읍에 속했습니다. 소백산맥 허리에 자리 잡은 한실에는 초가 15채가 있는데, 15채는 다섯 동네로 나뉘어 소백산맥 굽이와 줄기 여기 저기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소백산맥의 우뚝 솟은 봉우리들은 바위산인가 하면 나무꾼들의 도끼가 전혀 닿지 않은 소나무로 뒤덮여 있으며, 산중에는 조를 심는 밭때기도 더러 있어,

바라보면 그 모습이 웅장하고 다양합니다. 소수의 한실 사람들이 밟고 다녀 겨우 흔적이 난 오솔길을 굽이굽이 따라가면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한실 다음에 방문하기로 예정한 교우촌에서는 저를 영접하려고 심부름꾼들을 보내왔습니다만, 저는 조심스러워서 그들을 따라 나서지 않고 돌려 보냈습니다. 저는 성사들을 다 받은 한실 교우들과 작별하고 여름 은신처인 소학골로 가는 척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은 한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실의 회장 및 지각있는 교우 두 사람과 짜고 다른 교우들 몰래(한실의 다섯 동네 중) 가장 깊은 동네로 잠입하여 숨어 버렸습니다. 내가 든 오두막 골방은 넓이에 따라 누우면 몸을 4분의 1쯤 굽혀야 되나, 길이에 따라 누우면 발을 뻗칠 수 있었습니다. 높이로 말하면 알맞다고나 할까요. 제가 일어서면 서까래에 닿았습니다. 서까래 위에는 짚을 덮었구요. 그리고 문종이로 바른 출입문이 산 쪽으로 나 있었습니다.

저는 3월 초순부터 5월 10일까지 이 골방에서 지냈습니다. 잠시 출타한 때가 있었습시다만 그에 관해선 아래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우들은 제 물건과 미사 가방을 산에 있는 돌무더기 속에다 숨겼습니다. 제가 몸에 지닌 것이라고는 준주성범이 들어 있는 신약성서, 전례력, 연필 한 자루, 종이 몇 장뿐이었습니다. 저는 복사가 필요없기에 돌려보냈습니다. 더군다나 필요하다면 언제고 봉사하는 믿음직스럽고 헌신적인 교우들이 제 곁에 있었으니까요. 교우들은 집단 위기와 돌발 사건이 속출하던 이 시기에 저를 매우 아꼈습니다. 제가 믿은 세 교우들은 매일 밤 은밀히 제 골방에 모여 그날의 사건들에 관해서, 그리고 주의할 일들에 관해서 의논했으니, 사회의 연속이었다 하겠습니다. 근처 교우촌들이 모두 포졸들의 습격을 이미 받았고 교우촌 대부분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한실에 이어 제가 방문할 계획을 세웠던 교우촌은 제가 도착하기로 예정한 바로 그날 쑥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를 데려가고자 한실로 찾아온 그곳 심부름꾼들을 따라 나섰더라면 저는 도착하는 순간 포졸들에게 붙잡혔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포졸들이 나타나지 않는 교우촌은 한실뿐이니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㉔ 칼레 신부님과 박 상근 마티아와의 만남의 시간

3월 15일경 문경읍내 교우 박 마티아가 예비자인 매형과 함께 좁쌀을 사러 제가 숨어 살던 동네에 왔습니다. 저는 세 교우들과 상의해서, 제가 3-4일 정도 문경으로 피신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문경읍내에는 교우 15명이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모두 교우들이고 그 사실이 인근에 즉시 알려진 한실 교우촌 보다는 문경읍내에서 숨는 것이 더 쉬웠습니다. 박 마티아의 매형인 예비자는 좌중 맨 마지막으로, 저를 자기집에 영접하기로 작심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일 제가 자기 집에서 체포된다면 그는 목숨을 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심한 까닭에 우리 셋은 밤 11시 경에 문경으로 떠났습니다. 길은 어둡음 덕분에 도중에 4-5개 외교인 마을을 무사히 통과하여 새벽 2시 쯤 문경읍내 마티아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거처할 방은 빈 방이었는데, 단지들과 가재도구들이 차곡차곡 가득차서, 제가 겨우 누울 자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박 마티아와 그의 매형은 양반들이 아닌 까닭에, 조선 풍습에 따라 그 집에는 누구나 마음대로 오갈 수 있었습니다. 반가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집 밖에서 주인을 부릅니다. 그러면 주인이 나와서 마치 응접실 같은 사랑방으로 손님을 모십니다. 양반들은 무척 조심성이 있는 편인 데 비해 상민들

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티아의 집에는 별 불일도 없이 사람들이 거의 항상 들락날락 했습니다. 혹시 누가 제 방문을 열어 제킬 세라, 늘 방문을 안에서 걸어 잠겼습니다. 제가 식사할 때 쇠수저 소리가 밖으로 나갈세라 따로 나무수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침도 하지 말고 코도 소리내지 말고 푸십사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항들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렇지만 자꾸만 기침이 나왔습니다. 이는 극히 자연적 현상으로, 방이 몹시 습한데다가, 날씨가 쌀쌀한 데도 불을 지피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조심조심 지내던 둘째 날 밤 저녁상을 물린 다음 그만 안에서 방문 잠그는 것을 깜빡 잊었습니다. 저녁 10시경 캄캄한 방에서 담뱃대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방문을 열더니, 사람이 거쳐하지 않는 빈 방에 누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가까이서 자세히 보려는 듯 때때로 몸을 굽히고 3-4분가량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러갔습니다.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틀림없이 제가 기침을 한 탓에 그가 갑자기 나타났던 것입니다.

11시 또는 자정에 모두 물러간 다음에 저는 마티아를 불러, 떠날 터이니 봇짐을 챙겨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티아는 말했습니다. “신부님, 어디로 가시렵니까? 여기서 주변 수십 리 안에는 어디에도 신부님이 은신하실 곳이 없습니다.” 저는 “여보게, 하느님께서 보살피실 것이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마티아에게 이야기한 다음에 56세쯤 되는, 홀로 사는 열심한 교우 과부를 찾아가서, 내일 밤에는 다른 곳으로 떠날 터이니, 오늘 하루만 묵게 해줄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집에 묵으려 했던 것은, 문경읍내 다른 교우들은 저를 숨길 처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닭이 울 무렵 마티아는 급

히 돌아와서 매우 당황해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그 집에 가실 수는 없습니다. 신부님이 여기 계시다는 말을 하니깐 그 여교우는 겁에 질려 울면서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친구 한 사람을 만났는데, 포졸들이 오늘 중으로 저를 붙잡으려 한다고 귀뜸해 주더군요. 그러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한실로 돌아가겠소. 그러나 해가 뜨기 전에 절반도 못갈 터이니, 도중에 통과할 외교인 마을들을 피하려면 많이 돌더라도 서둘러 산꼭대기로 올라가야겠소. 저녁 때는 한실에 도착할 것ियो.” 저희 둘은 문경을 떠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경을 포졸들이 제가 읍에 잠입한 사실을 알아채고 소란을 피우면서 저를 붙잡으려 나섰지만, 그때 저는 이미 읍을 빠져나왔던 것입니다. 동틀 무렵 마티아와 저는 숲이 우거진 산 속에 있었는데 먹거리라곤 마른 과일(곶감) 몇 개뿐이었습니다. 점심 때가 지났는데도 저희는 계속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마티아는 늘 문경읍에서만 살아온지라, 산을 타는 고생에 전혀 익숙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친 나머지 하산하면서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정오쯤에 우리는 깊은 골짜기에 이르러 산에서 흘러내리는 개울가에 앉았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허기와 갈증이 참기 어려운 데다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막 싹트는 야생초 뿌리를 캐어 먹으며 쉬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티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실 뒷산 꼭대기까지 20리도 안 남았습니다. 그 뒷산꼭대기는 어느 능선에서나 잘 보입니다. 나 혼자서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쳤으니 아는 마을을 찾아가 음식을 얻어 먹도록 하시오.” 그러자 이 교우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부님, 제가 신부님을 떠나다니요. 혹시 한실이(포졸들의 습격을 받아) 폐허가 되었다면 신부님께선 어디로 가시

렵니까? 은신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신부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신부님께서 이 험한 곳에서 돌아가신다면 저도 기꺼이 함께 죽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말다툼할 때 저 헌신적인 교우 청년이 한 답변이었습니다. 마티아의 말인즉 옳았습니다. 그를 떠나 보내면 엄청난 위험을 자초한다는 사실을 제가 모를 리 있겠습니까마는 그가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나와 동행할 기력이 없을 뿐더러, 제가 이번만은 물려서선 안 된다는 결심이 서서, 참으로 감동적인 이 청년에게 명령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티아씨, 내가 말한 대로 하시오. 명령입니다. 당신이 가져온 마른 과일(곶감) 절반은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은 내게 주시오. 순명하세요.” 이렇게 말하자 그는 저를 쳐다보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울부짖는 바람에 제 마음이 짓눌리는 듯했습니다. 저 역시 눈물을 참을 수 없어 그의 손을 붙잡고 함께 통곡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희를 굽어보시고 모든 것을 당신 뜻대로 섭리하셨습니다. 몇 마디 작별 인사를 나눈 뒤에 저는 홀로 떠났습니다. 한참 갔는데도 마티아는 그 자리에서 통곡하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산을 넘어서야 비로소 마티아는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㉔ 칼레 신부님이 박 마티아와 헤어진 후 안실을 떠나 길에서 도적을 만나 당한 어려움

저는 하느님께 의탁하면서 계속 갔습니다. 한실의 산들도 보이지 않고 길도 없었지만 저는 한실을 향해 가장 짧은 지름길을 택했습니다. 도중에 제가 알지 못하는 외교인 마을을 지나가다가 세 번이나 외교인들을 만났건만 내게 수인사를 건네지 않았으니 하느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조선에선 사람

을 만나면,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오는지, 누구인지 물어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후 3시경 마침내 한실 산꼭대기에 다다랐습니다. 거기서 한실의 다섯 동네를 바라다볼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살펴보았더니 네 동네는 인적이 없었습니다. 네 동네의 초가집들은 문들이 열려 있고 아무 사람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은신했던 동네를 바라보니, 남자 두 사람이 보이고 또 한 남자가 두 여자와 함께 산에서 내려가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하느님이 도우시어 여기는 안전하구나”라고 말하면서 잠시 쉼 다음에 동네로 내려갔습니다. 무척 배가 고팠으니까요. 세 집에서 함께 쓰는 마당으로 들어서면서 문득 보니 거기 있는 남자들은 영락없이 포졸들이었습니다. 제가 모르고 사지에 들어섰다가 빠져 나와 산으로 도로 올라가려 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게 섰거라. 어디로 가느냐?”라고 외치면서 그들이 달려와 저를 붙잡았습니다. 한 남자와 함께 하산하던 두 여자는, 달아나다가 그 남자에게 붙들린 여교우들이었습니다. 포졸들은 제가 지닌 작은 봇짐을 빼앗고 때리고 밀쳐서 저를 방에다 가두었습니다. “어디서 오느냐, 어디로 가느냐”라고 질문하는 품을 보니, 제가 서양 선교사라는 사실을 모르는 게 분명해서, 저는 일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외톨인데다가 기진맥진한 이 사람을 어떻게 양대인(洋大人)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선교사를 양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포졸들에게 대답하지 않고 꾸물거리는 것을 보고, 전 발바라라는 교우가 나서서, “이분은 제 아버님인데, 보시다시피 귀가 먹었습니다. 나리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제게 하시면 제가 아버님께 여쭙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포졸들이 신앙에 관해서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고백하리라 작심하고 기다렸습디만, 이

포졸들은 종교에 관해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원하는 것은 오로지 돈뿐이었습니다. 전 발바라가 포졸들에게 “아버님은 이 동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마련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아버님을 산으로 모시고 가서, 거기 숨어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면 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니, 한 포졸이 “좋소”하고 찬동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 평평한 곳에 이르자 저를 앉혔습니다. 발바라는 교우들을 찾아가서, 불행하게도 제가 포졸들에게 붙잡혔다는 사실, 포졸들이 돈을 받으면 저를 풀어주리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포졸 하나가 저를 지키면서 여러 번 말을 걸어왔지만 제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정말 귀머거리군”하면서 제 귀에다 대고 “내 말 들려?”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쥐어박으며 나를 자극하려 했습니다. 제가 무표정하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니까 마침내 그도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니 저야 천만번 다행이었지요. 산꼭대기로 또는 바위 틈새로 숨었던 교우들이 전 발바라의 소리를 듣고는 “신부님이 붙잡혔으니 우리가 여기 이대로 있을 수 없지. 나가서 신부님과 같이 죽읍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포졸한 명과 먼저 내려와 집에 있는데 곧 이어 내려온 교우들이 포졸더러, 귀머거리하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해서 저는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우들도 제가 있던 곳으로 오기에 저는 교우들더러 “이 포졸들은 좀 이상합니다. 돈만 요구할 뿐 종교는 거론조차 하지 않으니까요”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교우가 “포졸처럼 굴지만 실은 도둑놈들일지도 모르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 모두 의심하는 눈치였습니다. 행색으로 봐 더욱더 의심이 갔기에 “당신네가 포졸들이라면 이런 때 포졸들이 으레 갖고 다니는 쇠사슬이나 포승줄이 왜 없습니까? 포졸들이 임무 수행 때 지니는 증명서

를 보여주시오.” 이렇게 해서 사기는 탄로났습니다. 그들은 포졸들을 가장한 도둑들이었던 것입니다. 교우들은 기세등등해서 명칭한 도둑들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교우들은 저를 하느님의 심부름꾼으로 여겼습니다. 모조리 약탈당할 뻔한 마을을 구하려고 하느님이 저를 보내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다른 마을은 이 도둑들에게 당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마티아가 저와 함께 이 부락에 왔더라면 틀림없이 제 정체가 발각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동행하지 않은 것도 하느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저는 2-3일 간 제 골방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한실이 교우촌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포졸들이 찾아오지 않기를 모두 간절히 바랐습니다. 3월 19일경 함창현 문산(Mounsang=文山 물미退江)이라는 외교인촌의 교우 이 요한이 한실에 왔습니다. 교우촌들은 모두 공포에 떨었습니다. 포졸들이 쫓기는 신부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묶으려고 쇠사슬을 찢렁거리며 사방에서 설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요한이 자기집에 제 은신처를 마련하겠다고 기꺼이 제의하기에, 저는 골방에 모인 교우들과 상의해서 한동안 이 요한 집에 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집은 한실에서 60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밤에 출발해서 여러 마을을 지나 이튿날 다행히 문산 이 요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㉔ 칼레 신부님의 암장면 문산 마을에서의 생활

문산은 세 동네를 거느린 큰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이 요한 혼자만 교우이고 그의 부인과 노모조차도 외교인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방이 둘이었는데, 제가 거처하던 방은 제법 넓었고 한지로 바른 문이 옆방으로 나 있었습니다. 요한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런데도 식구들끼리 또는

찾아오는 이들과 더불어, 무엇을 먹고 살까(마태 6, 25=루카 12, 22) 걱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그 집에 열흘 동안 살면서 주님의 저 말씀이 옳다는 것을 적어도 한 번은 확인했을 것입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제 방에 들어올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작은 벽장 속에 들어가 움썽 달싹하지 못하고 갇혀 지냈습니다. 또 한 번은 요한의 친척한 사람이, 요한의 집에 누구를 숨긴 것을 눈치챘거나 의심한 나머지 찾아와서는 만나질 동안이나 천주교를 두고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동안 동료 선교사들은 순교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다블뤼 주교, 오매트르 신부, 위앵 신부님께서는 서울에서 고문을 받은 다음 지방(충남 보령군 수영)에서 (1866. 3. 30) 순교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단지 유럽 출신 신부들을 체포하려는 목적으로 교우들을 괴롭힌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관장에게 자수할까도 생각했습니다.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상을 공경하는 뜻으로 닻새를 정해서 매일 예수 수난사를 읽고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알고 또한 우리 구세주를 본받을 힘을 얻고자 했습니다. 마지막 날을 성수요일이었는데, 저는 네복음서에 실린 수난사들을 모조리 봉독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으로 자수하려던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때 유 토마라는 한실 교우가 찾아와서는, 한실 교우들이 저를 보기 원하고 아울러 위험도 다 사라졌다고 하면서, 그 동안 겪었던 일은 차차 이야기하겠노라고 덧붙였습니다.

㊤ 칼레 신부님이 한실 마을로 다시금 가시던 중에 들었던 한실의 이야기

성수요일에서 성목요일 사이의 밤에 단지 토마와 함께 한실로 떠나 길을 가다가 문산에서 상당히 떨어진 언덕에

이르러, 갖고 온 과일을 먹었습니다. 자연에 파묻혔습니다. 달과 별들은 제 갈 길을 가면서 땅에 은은한 빛을 보냈습니다. 마을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호랑이를 비롯한 야수들은 틀림없이 저희 가까이 있었겠지만 저희 둘은 자신들의 신상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다 보니 주변 사물들을 의식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한참 쉬고 난 다음 깜짝 놀라서 일어나 길 이쪽 저쪽을 살피면서 아무도 엿듣는 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토마는 앉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부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신부님이 안 계시는 동안 저희는 모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부님께서 한실을 떠나신 다음 날 저녁 때 충주와 문경 두 읍의 포졸 아홉 명이 저희를 습격했습니다. 그들은 한실의 첫 부락에서 전교회장 김 아우구스티노를 붙잡아 결박했습니다. 교우 하나가 달아나자 쫓아가 쇠사슬로 머리를 힘껏 내리치는 바람에 큰 상처가 나고 피를 많이 쏟기는 했지만 무사히 도망쳤습니다. 김 안드레아와 여교우 몇 사람은 붙잡혔습니다. 한실 다른 부락들에서는 포졸들이 교우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포졸들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남자들, 여자들, 어린이들 할 것 없이 혼비백산, 세상을 집어삼키는 약탈자에게 쫓기기라도 하듯이 비명을 지르면서 달아나버렸던 것입니다. 포졸들은 김 아우구스티노 노인이 전교회장인 것을 알고서는 매우 쳐서 교회서적들과 성물들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경 현감은 성품이 어질고 백성을 아끼는 관장인데다, 또 한편 나라의 영을 따라야 하는 처지인지라, 포졸들을 보내면서 분명히 명하기를, 한실에 있는 책과 성물들은 거두어 오되, 천주교인은 한 사람만 데려오고, 나머지 천주교인들은 물품만 내어 놓으면 조용히 지내도록 버려두라고 했던 것입니다. 김

아우구스티노 전교회장이 성물 은신처를 절대로 실토하려 하지 않자 그를 그냥 두고, 그 대신 김 안드레아와 교우 부인들을 한실의 다른 부락으로 데리고 가서는 얼마나 심하게 다그쳤던지, 그만 이들은 산으로 달아난 교우들을 불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쉽사리 하산했는데, 이번에도 돈만 주면 해결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포졸들은 문경 현감의 영을 알려주면서 그 영을 따르라고 종용하고, 영을 거스르는 날에는 엄한 벌을 받으리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영세한 지 겨우 2-3년밖에 안 되는 교우 몇 사람은 명령대로 해도 큰 잘못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하느님을 배반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명령대로 하자 모두 따라서 했습니다. 각 교우 가정에서는 별로 필요하지 않는 책을 한두 권씩 내놓았습니다. 포졸들이 더 많이 찾아내자 어떤 교우는 상본과 목주들까지 바쳤습니다.” 토마는 이렇게 말하고 울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대꾸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문산을 떠나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일입니다. 알았더라면 아마도 틀림없이 한실로 달아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토마는 다음과 같이 말을 계속했습니다. “포졸들은 책과 성물들을 갖고 김 안드레아를 데리고 문경읍으로 갔습니다. 읍에 이르러 그리스도인들의 물건들을 현감에게 바치니, 현감은 ‘한실 사람들이 순종했도다. 유순한 백성인지고.’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아더러 ‘저것들이 너희 교회 물건들이냐?’하니, 안드레아는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현감은 불을 피우게 하고 그것들을 모두 불에 던져 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선 김 안드레아에게 ‘이제 교회 물품이 없는데도 교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니, 김 안드레아는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대답하

자, 현감은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잘 대답했다. 편히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 마을을 괴롭히지 말라는 서장을 써 주마. 앞으로는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아라.’ 토마는 또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 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포졸들에게 작은 선물들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만족하고, 저희를 만날 때마다 저희더러 전혀 겁낼 것 없다고 안심을 시킵니다.” 저와 토마는 몇 마다 짤막한 말을 더 주고 받은 다음에 다시 길을 갔습니다.

㊤ 칼레 신부님이 한실에 도착하신 우 떨치시는 인근 지역 사목활동

한실에 도착하니, 즉시 교우들이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보속을 정해 주고 이튿날 고해성사를 주었습니다. 바로 그날(1866.3.30) 다블뤼 주교, 오매트로 신부, 위앵 신부님께서(충남 보령군) 수영에서 신앙을 위해 피를 쏟으셨습니다만, 그때에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제 골방에 틀어박혀 부활 축일을 지냈는데, 한실에서 60-70리 떨어진 작은 교우촌 자치골은 포졸들의 습격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교우촌에는 지난 20개월 동안 성사를 주지 못했습니다. 한실에 눌러 있을 게 아니라 다른 교우촌들을 보살펴야지 하는 생각에서 자치골로 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 차례 하느님께서 이 전도여행을 보호해 주십사고 빌고 나니, 여행에 별 위험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 박해가 조금 느슨해졌고, 또한 이제까지 무사히 견뎌왔기 때문에 이번 전도여행도 순조로울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이제부터 파란만장했던 여행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활주간 목요일 자정을 넘어 금요일에 출발하기로 작정했

습니다. 수요일 저녁 유 토마에게 제 계획을 말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그는 누이를 보려고 자치골에 갈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목요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좀 자다가 일어나 토마와 함께 떠났습니다. 하늘엔 구름이 깔리고 비가 올 듯했습니다. 저희는 겨우 흔적이 난 오솔길을 따라 애써 산봉우리로 올라갔습니다. 얼마 전에(문경에서 한실로 올 때) 타고 내려왔었던 오솔길이었습니다. 첫 번째 산을 넘어 두 번째 산을 오르다가 그만 길을 잃었습니다. 고생고생하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한 다음에야 겨우 오솔길을 되찾고 두 번째 산봉우리에 올라섰습니다. 여기가 바로 경상도와 충청도의 경계선이라 저희는 충청도로 들어섰습니다.

잠시 쉬고 나서 이 높은 산을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일찍이 본 적이 없는 매우 험한 길이었습니다. 이 고장 사람들은 이 길을 <마의 통로>라고 부르는데, 양쪽에 수풀이 뽕뽕이 우거져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오솔길은 온통 돌맹이일 뿐 밟을 흙이라곤 한 줌도 없고 때로는 깊은 낭떠러지 계곡이 있어, 조금이라도 헛디디는 날에는 죽든지 사지가 으스러질 것이었습니다. 낮에도 지나가기 어려운데 저희는 한밤중에 들어섰던 것입니다. 토마는 잔뜩 겁을 먹은 나머지 서둘러 내려갈 엄두를 내지 못하기에, 제가 지팡이를 짚고 앞장을 섰습니다. 평생 처음 가는 길이라 계속 허리를 구부리고 길과 돌맹이들을 더듬으면서 아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저희는 45분 가량 이런 식으로 전진하여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하산했습니다. 저희가 산봉우리에서 내려오기는 했으나 아직도 봉우리에 연결된 계곡을 지나가고 있을 때, 100보 떨어진 곳에서 어떤 사람이 툴툴없이 자기 오두막 주위를 맴돌고 있는 호랑이를 쫓으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엄청난 소란을 피우는 소리가 들렸

습니다. 때는 대략 자정이었습니다. 저희는 불도 무기도 없었습니다. 실은 매년 수많은 주민들을 잡아먹는 호랑이에 관해선 생각조차 할 겨를도 없이 떠났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르는 소리를 듣고 토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도둑놈들이 이 시각에, 호랑이가 득실거린다고 소문난 이 계곡을 지나간다면 백발 백중 잡혀먹힐 것입니다. 저희가 무사히 지나가다니 정말 기적입니다. 저 혼자서는 도저히 지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점점 짙어지더니 그만 찬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가 사흘이나 계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희는 정지해서 비올 때 조선사람들이 뒤집어쓰는 기름먹인 종이들을 봇짐에서 꺼내 썼습니다. 그때 닭 우는 소리가 나고 그 동안 쌓인 피로로 시장기를 느껴, 봇짐 속에 건어물이나 건과일(곶감)이 좀 있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이미 봇짐을 챙긴 토마는 말하기를, “건과일이 좀 있기는 있지만, 지금 연풍읍 앞에 있으니 되도록 빨리 지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연풍읍을 지나서 적당한 곳에서 쉬시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갑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연풍읍은 한실마을에서 30리밖에 안됩니다. 저희가 몹시 지치기는 했지만 연풍읍에 빨리 도착한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저희는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중략)

경애하올 교장 신부님, 이 충직한 종이 존경과 애정의 정을 표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니콜라 칼레 드림.

(‘안동교구사 자료집 제2권 고문서’에서 발췌)

[3] 칼래 신부님과 박상근 마티아의 눈물 어린 우정에 대한 역할극

(역할을 분담하여 역할극을 해봅시다 - 등장인물 : 해설자, 칼래 강 신부, 박상근 마티아)

(해설자) 칼래 강신부가 박 마티아 일행을 따라나선 때는 3월 15일 밤 11시경이며 도착 한 때는 새벽 2시쯤이었다. 그러나 다음날 밤 11시 혹은 자정 무렵 모두들 물러간 뒤, 강 신부는 이미 그 동네의 외교인들에게 노출된 것을 눈치 채고, 거기에서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서 즉시 그 길로 마티아를 불러 길을 떠날 준비를 하였다. 아래에는 당시 다급하였던 상황을 대화형식으로 꾸며서 옮겨 놓은 것이다.

칼래 신부(박 마티아를 부르며) : 떠날 터이니 봇짐을 챙겨 주시오.

박 마티아 : 신부님 어디로 가시렵니까? 여기서 주변 수십 리 안에는 어디에도 신부님이 은신할 곳이 없습니다.

칼래 신부 : 박 마티아, 하느님께서 보살피실 것이요.

(해설자) 칼래신부는 조금 전에 있었던 노출사건에 대한 일을 마티아에게 이야기 한 다음에 56세쯤 되는, 홀로 사는 열심한 교우 과부를 찾아가서, 내일 밤에는 다른 곳으로 떠날 터이니 오늘 하루만 묵게 해줄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였다.

칼래 신부 : 제가 그 집에 묵으려 했던 것은, 문경읍내 다른 교우들은 저를 숨길 처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이요.

박 마티아(해설자 : 닭이 울 무렵 박 마티아가 급히 돌아와서) 신부님, 그 집에 가실 수 없습니다. 신부님이 여기 계시다는 말을 하니까 그 여교우는 겁에 질려 울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친구 한 사람을 만났는데, 포졸들이 오늘 중으로 저를 붙잡으려 한다고 귀뜸해 주더군요. 그러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칼래 신부 : 저는 한실로 돌아가야겠소. 그러나 해가 뜨기 전에 절반도 못갈 터이니, 도중에 통과할 외교인 마을들을 피하려면 많이 돌더라도 서둘러 산꼭대기로 올라가야겠소. 저녁 때는 한실에 도착할 것이요.

(**해설자**)두 사람이 막 문경 읍내를 빠져나갈 무렵 포졸들이 들이닥쳤지만, 헛일을 하였다. 동이 틀 무렵 두 사람은 숲이 우거진 산속에 있었는데, 먹을 것이라고는 마른과일(곶감) 몇 개뿐이었다. 박 마티아는 산을 잘 탔지만 칼래 신부는 몇 번이고 넘어지면서 가다가 정오쯤에 깊은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개울가에 앉아서 허기와 갈증을 개울물로 달래고 막 싹이 트는 야생초 뿌리를 캐어먹으며 지친 심신을 쉬었다.

칼래 신부 : 한실 뒷산 꼭대기까지 20여리도 안 남았습니다.

그 뒷산 꼭대기는 어느 능선에서나 잘 보입니다.
나 혼자서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쳤으
니 아는 마을을 찾아가 음식을 먹도록 하시오.

박 마티아 : 신부님, 제가 신부님을 떠나다니요. 혹시 한실
이(포졸들의 습격을 받아) 폐허가 되었다면, 신부
님께선 어디로 가시렵니까? 은신할 곳이 없지 않
습니까? 신부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함께 가겠습
니다. 신부님께서 이 험한 곳에서 돌아가신다면
저도 기꺼이 함께 죽겠습니다.

(해설자) 칼래 신부는, “이것이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말다
툼할 때 저 헌신적인 교우청년이 한 답변이었다. 마
티아의 말인 즉 옳았다. 그를 떠나보내면 엄청난 위
험을 자초한다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가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나와 동행할 기력이 없
을뿐더러, 내가 이번만은 물려서서는 안 된다는 결
심이 섰다.”라고 회고하였다.

칼래 신부(참으로 감동적인 어조로) : 마티아씨 내가 말한
대로 하시오. 명령입니다. 당신이 가져 온 마른과
일(꽃감) 절반은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은 내게 주
시오. 순명하세요.

(해설자) 칼래 신부는 그 이후의 일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 청년은 나를 쳐다보며 울기 시
작했습니다. 그가 울부짖는 바람에 나의 마음이 짓
눌리는 듯 했습니다. 나도 역시 눈물을 참을 수 없
어 그의 손을 붙잡고 통곡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는 우리들을 굽어보시고 모든 것을 당신 뜻대로 섭
리하셨습니다. 몇 마디 작별 인사를 나누 뒤, 나는
홀로 떠났고, 한참을 갔는데도 박 마티아는 그 자
리에서 통곡하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가 산을 넘어서야 비로소 마티아는 시야에서 사라
졌습니다.>

3) 도보로 순례 하면서

(도보로 순례하면서 신앙 선조들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도보 출발하기 전 : 283번 순교자 찬가**

- 1) 박상근 마티아 : 신부님, 제가 신부님을 떠나다니요. 혹시 한실이(포졸들의 습격을 받아) 폐허가 되었다면, 신부님께선 어디로 가시렵니까? 은신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신부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신부님께서 이 험한 곳에서 돌아가신다면 저도 기꺼이 함께 죽겠습니다.
- 2) 칼래 강 신부 : 박 마티아, 하느님께서 보살피실 것이요.
- 3) 칼래 강 신부 : 마티아 형제, 내가 말한 대로 하시오. 명령입니다. 당신이 가져 온 마른과일(곶감) 절반은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은 내게 주시오. 순명하세요.
- 4) 박경화(바오로) : “나와 같이 무식한 사람이 내 힘만 가지고서야 어떻게 그를 당해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모님의 도우심만 믿으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걱정을 합니까?”
- 5) 신태보(베드로) : “우리 교(敎)는 우선 마음 속을 다스리고 칠극(七克)과 천주십계(天主十戒)로 안팎을 모두 지도합니다. 사실 우리 교는 공자와 다른 성현들의 가르침을 완성한 것입니다.”

6) 고성운(요셉) : “조심해서 내 머리는 단번에 베어라.”

7) 구성열(바르바라) : “예수와 마리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들과 같이 곧 천국으로 올라가자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배교할 수 있으며, 이 잠시 지나가는 목숨을 보존하려고 참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잃을 수 있겠습니까?”

8) 김사건(안드레아) : “의로운 사람은 남에게 해가 될 일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9) 김호연(바오로) : “참된 고향에서 만납시다.”

10) 전 사베리오와 이 요한 : “당신들이 저희 사지를 나뭇가지에 매어서 잡아 빼고, 저희 몸을 갈기갈기 찢고, 저희 뼈를 가루가 되도록 치신다 해도 저희는 배교하지 않습니다.”

11) 성 이윤일(요한) : “나는 이제 순교하러 떠난다. 너희들은 집에 돌아가 성실하게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여라. 그리고 꼭 나를 따라오너라.”

*성지에 도착하면 바치는 기도 : 천주 공경가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바칩니다.

천주 공경가(天主 恭敬歌)

이 벽

(해설자) 어와 세상 벗님네야 이 내 말씀 들어보소.

(다함께) 어와 세상 벗님네야 이 내 말씀 들어보소.

(오른쪽) 집안에는 어른있고 나라에는 임금있네.

내몸에는 영혼있고 하늘에는 천주있네.

부모에는 효도하고 임금에는 충성하세.

삼강오륜 지켜가자 천주공경 으뜸일세.

(다함께) 어와 세상 벗님네야 이 내 말씀 들어보소.

(왼쪽) 이내몸은 죽어져도 영혼남아 무궁하리.

인륜도덕 천주공경 영혼불멸 모르면은,

살아서는 목석이요 죽어서는 지옥이라.

(다함께) 어와 세상 벗님네야 이 내 말씀 들어보소.

(오른쪽) 천주있다 알고서도 불사공경 하지마소.

알고서도 아니하면 죄만점점 쌓인다네.

죄짓고서 두려운자 천주없다 시비마소.

아비없는 자식봤나? 양지없는 음지있나?

(다함께) 어와 세상 벗님네야 이 내 말씀 들어보소.

(왼쪽) 임금용안 못뵈었다 나라백성 아니런가?

천당지옥 가보았나? 세상사람 시비마소

있는천당 모른선비 천당없다 어이야노

시비마소 천주공경 믿어보고 깨달으면

영원 무궁 영광일세.

(다함께) 영원무궁 영광일세 영원무궁 영광일세.

4) 성지에서의 기도

(십자가의 길 기도)

(성지 소개 내용 가운데 이곳 성지와 관련된 내용을 읽고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함께 바칩니다)

시작성가 118번 골고타언덕

시작기도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밀알의(요한 12,24 참조) 운명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요한 12,25) 하신 말씀으로 저희도 주님을 따라 이 길을 가도록 초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먼 옛날의 어느 순간에만 짊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저희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희와 함께, 그리고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옛날 키레네의 시몬처럼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세상의 구원을 위한 봉사에 나서기를 바라십니다.

저희의 십자가 길이 신심 행위로만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저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서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오늘 이 십자가의 길은 주님을 섬기고 닮기 위해 온 열정을 다 바친 저희 신앙의 선조들과 함께 걸으려합니다. 그들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닮을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소서.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제1차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성경말씀 (마태 27,22-23,26)

빌라도가 군중에게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하니, 그들은 모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요?”하자,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하고 외쳤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빠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기도

주님, 주님께서는 다른 이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양심의 소리를 짓눌러 버렸기에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양심의 외면으로 역사 안에서 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학대와 처벌과 사형을 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자신은 여전히 진리보다는 성공을, 정의보다는 명성을 더 좇고 있습니다. 저희 삶에서 양심이 두드리는 나직한 소리,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해 주소서.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 사도를 바라보신 것처럼 저희를 바라보아 주소서. 주님의 눈길로 저희 영혼을 꿰뚫고 저희 삶의 방향을 잡아 주

소서. 오순절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회개시키시어, 저희 모두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언제나 회개의 은총을 새로이 내려 주소서.

<주님의 기도>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제2차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성경 말씀 (마태 27,27-31)

그때에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데리고 가서 그분 둘레에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의 옷을 벗기고 진홍색 외투를 입혔다.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하며 조롱하였다. 또 그분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때렸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외투를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기도

주님,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고통 받는 이들과 약한 이들을 조롱하는데 저희가 동조하지 않게 해 주소서. 비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에게서 주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게 도와주소서.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일이 멸시의 대상이 되어 세상이 조롱하여도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저희가 그 길을 따르도록 저희를 부르셨습니다(마태 10,38 참조). 저희가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비록 삶이 고달프더라도 불평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저희가 사랑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소서. 사랑의 요구에 순종하며 참다운 기쁨에 이르게 해 주소서.

<주님의 기도>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제3째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성경말씀 (이사 53,4-6)

‘주님의 종’은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

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 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찢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기도

주 예수님,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려 땅에 쓰러지셨습니다. 저희 죄의 무게가, 저희 교만의 무게가 주님을 짓누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넘어지신 것은 비극을 암시하는 것도, 인간적인 나약함을 보여주는 것고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교만으로 쓰러져 있는 저희를 만나러 오시고자 하셨습니다. 스스로 인간을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희의 교만은 인간을 상품처럼 사고팔 수 있게 하고, 실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죽음을 정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만,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주님, 넘어진 저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소서.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저희를 파괴시키는 교만을 버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소서.

<주님의 기도>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제4차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성경 말씀 (루카 2, 34-35, 51)

시메온은 예수님의 부모와 아기 예수님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뚫리는데, 많은 사람의 마음 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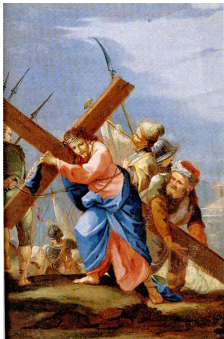
주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성모님께서 끝까지 남아계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어머니가 되시리라는 믿기 어려운 천사의 예고를 믿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계신 순간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모님께서 십자가의 순간, 칠후 같은 어둠이 세상을 뒤덮은 순간에, 믿는 이들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성모님께 간청하오니, 저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어, 이 믿음으로써 저희가 이웃에게 봉사하고, 다른 이들의 고통에 동참하여 그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게 해 주소서.

<주님의 기도>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제5차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성경 말씀 (마태 27,32; 16,24)

군사들은 [총독관저를]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보고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기도

주님, 주님께서는 키레네 사람 시몬의 눈과 마음을 열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게 하심으로써 그에게 신앙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부르심이 저희의 계획이나 바람과 어긋난다 하더라도 저희가 고통 받는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해 주소서. 다른 이의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음이 은총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저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알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의 수난에 동참하고 이 세상의 고통을 나눌 때에 비로소 구원의 일꾼이 되고, 주님의 몸인 교회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깨닫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의 기도>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제6째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성경 말씀 (이사 53,2-3)

‘주님의 종’에게는 우리가 우러러 볼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
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
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
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기도

주님, 저희가 주님의 얼굴을 찾으려 애쓰는 마음을 가지게
해 주소서. 저희가 사물의 겉모습만 보는 어리석음을 가지지
않고, 세상 안에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단순함과
순수함을 가지게 해 주소서. 저희가 큰 일을 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겸손하게 저희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용기를 주소서.
주님의 얼굴을 저희 마음에 새겨 주시어, 저희가 주님을 뵈
옵고, 주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 줄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의 기도>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제7째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성경 말씀 (애가 3,1-2.9.16)

나는 그분 격노의 막대로 고통을 겪은 사나이. 그분께서는 빛 없는 어둠 속으로 나를 몰아쳐 걷게 하시고 …… 내 길에 마름돌로 담을 쌓으시며 내 앞길을 막아 버리셨네. 내 이가 자갈을 씹어 부서지게 하시고 나를 땅에다 짓밟으셨네.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저희의 짐을 짊어지셨고 지금도 여전히 짊어지고 계십니다. 저희의 짐이 주님을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저희 혼자 힘으로는 먼지 더미에서 일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를 욕망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 주소서. 저희에게 돌로 된 마음 대신 살로 된 마음, 볼 수 있는 마음을 다시 주소서. 거짓 주장을 물리치고 그 허구성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하시며, 물질주의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게 해 주소서. 저희가 악의 세력에 맞설 수 있도록 맑은 정신으로 언제나 깨어 있게 해 주시고, 다른 이들의 간절한 요구들을 살피 도와줄 수 있게 해 주소서. 이 모든 어둠 속에서도 저희에게 밝은 빛을 주시어, 저희가 세상에 희망을 전해 주는 사람이 되게 해 주소서.

<주님의 기도>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제8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성경 말씀 (루카 23,28-31)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보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아이를 배어 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 보지 못한 여자는 행복하리라!’하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 사람들은 ‘산들에게 우리에게 무너져 내려라하고,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어다오 할’ 것이다. 푸른 나무가 이러한 일을 당하거든 마른나무야 어떻게 되겠느냐?”

기도

주님, 주님께서는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회개와 심판의 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날에 저희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양심을 속이고 이전과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악의 꾀임에서 벗어나도록 촉구하십니다. 또한 저희의 막중한 책임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심판의 날을 맞게 될 위험을 경고하십니다. 저희가 거저 연민의 말이나 늘어놓으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도록 해 주소서. 저희가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소서. 저희가 결국 마른나무로 남지 않고, 참포도나무이신 주님의 살아있는 가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해 주소서(요한 15,1-10 참조).

<주님의 기도>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제9차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성경 말씀 (애가 3,27-32)

젊은 시절에 멍에를 메는 것이 사나이에게 좋다네. 그는 홀로 말없이 앉아 있어야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짐을 지우셨기 때문

이네. 그는 제 입을 먼지 속에 박아야 하네. 어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지. 그는 자신을 때리는 이에게 뺨을 내주며 수치를 가득히 받아야 하네. 주님께서는 마냥 버려두지 않으시네. 고통을 주셨다가도 당신의 크신 자애로 가엾이 여기시네.

기도

주님, 주님의 교회는 물이 가득 차 가라앉으려는 배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에는 밀보다는 가라지가 더 많아 보입니다. 주님 교회의 더러워진 겉모습에 저희 마음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더럽힌 자는 바로 저희입니다. 저희는 온갖 고상한 말과 행동을 하고서도 또다시 주님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 안에서 아담은 늘 다시 넘어지고 있사오니, 주님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가 타락하여 주님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니, 사탄이 기뻐 웃습니다. 사탄은 주님께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시기를, 주님의 교회가 타락하고 주님께서 패배자로 땅바닥에 쓰러져 계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시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교회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소서. 또한 저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의 기도>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제10차 예수님께서 옷벗김 당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성경 말씀 (마태 27,33-36)

이윽고 골고타 곧 ‘해골 터’라는 곳에 이르렀다. 군사들이 쓸개즙을 섞은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라고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맛을 보시고서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 거기에 앉아 예수님을 지켰다.

기도

주 예수님, 사람들이 주님의 옷을 벗기고, 주님을 모욕하며 사회에서 추방하였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아담의 치욕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것을 씻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과 곤궁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언자들의 말을 실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무의미하게 보이는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셨으며,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님과 저희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가장 연약한 태아의 단계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과 모든 사람을 깊이 존중하게 해 주소서. 주님 은총의 빛으로 저희를 감싸주소서.

<주님의 기도>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제11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성경 말씀 (마태 27,37-42)

군사들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죄명을 붙여 놓았다. 거기에는 ‘이자는 유다인의 임금 예수다’라고 쓰여 있었다. 그때에 강도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못 박혔다.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대며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해 보아라.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과 함께 조롱하며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시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 터인데.”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을 받으시고, 주님의 몸과 존엄이 파괴되는 것을 참아 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피하여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저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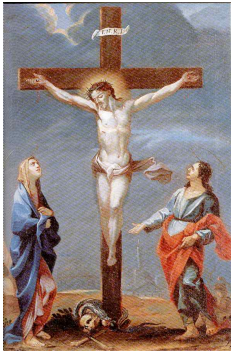
저희의 소명을 회피하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과 굳게 결합되어 주님 안에 머물도록 도와주소서. 저희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짓 자유의 가면을 벗겨 주소서. 저희를 ‘사로잡는’ 주님의 자유를 받아들이게 해 주시며, 주님께 굳게 ‘매여’ 참된 자유를 얻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의 기도>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제12차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성경 말씀 (요한 19,19-20)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 태양은 빛을 잃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새롭게 십자가에 못 박히십

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는 하느님을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나약함과 사악함으로 하느님의 모습, 주님의 모습이 어둠 속에 가려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알려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난 받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높이 들어 올려지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어둠과 혼돈의 시기에 주님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소서. 이 어둠과 고난의 시기에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주님을 새로이 보여 주소서. 저희에게 주님의 구원을 드러내 주소서.

<주님의 기도>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제13차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목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성경 말씀 (마태 27,54-55)

백인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이들이 지진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시중들던 이들이다.

기도

주님, 주님께서는 죽음의 어둠 속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신은 선한 사람들이 거두어 깨끗한 아마포로 감쌌습니다(마태 27,59 참조). 믿음이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태양이 완전히 저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자주 잠들어 계시는 듯 보이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얼마나 쉽게 뒤로 돌아서서 ‘하느님은 죽었다’고 속삭이는지 모릅니다. 어둠의 시기에, 저희가 주님께서 여전히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 낙담하려 할 때에 저희를 잡아 일으켜 주소서. 저희가 주님을 홀로 버려두는 일이 없게 해 주소서. 혼란의 시기를 이겨 내는 성실함과, 주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워하실 때 성모님께서 주님을 다시 한번 품에 안으셨던 사랑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소서. 가난하든 부유하든, 배운 것이 많은 적든, 저희의 모든 두려움과 편견을 넘어서 주님께 저희의 능력, 저희의 마음, 저희의 시간을 바쳐 부활을 기다리는 동산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주님의 기도>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제14차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성경 말씀 (마태 27,59-61)

요셉은 시신을 받아 깨끗한 아마포로 감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시고 나서,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러 막아 놓고 갔다. 거기 무덤 맞은 쪽에는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무덤에 묻히셔서 죽은 밀알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시대에 영원히 풍성하게 열매 맺는 밀알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내어 주신 몸, 참된 만나인 생명의 빵을 보장하는 밀알의 약속이 그 무덤에서 모든 시대에 빛나고 있습니다. 영원한 말씀은 강생과 죽음을 통하여 저희 곁에 계십니다. 주님의 몸은 저희 손 안에 놓여지고, 저희 마음 안에 들어가시어, 저희 안에서 자라나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밀알처럼 저희를 위하여 주님 자신을 바치시어, 저희 또한 목숨을 버림으로써 목숨을 얻을 수 있다는 밀알의 약속을 믿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성체의 신비를 더욱 사랑하고 공경하며, 천상 양식인 주님을 저희 생명의 원천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저희가 주님의 ‘향기’가 되어, 주님의 신비로운 삶의 자취를 이 세

상에 널리 퍼뜨릴 수 있게 도와주소서.

땅에 떨어진 밀알이 자라나 줄기와 이삭이 맺듯이, 주님께서도 무덤 안에 머물러 계실 수 없으셨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성부께서 주님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육신이 죽음의 나라를 보지 않게 하셨기’(사도 2,31; 시편 16[15],10 참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은 죽음의 나라를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도 부활하시어, 변모된 우리 몸을 위한 자리를 하느님의 마음 한가운데에 마련해 두셨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희망 속에서 기뻐 용약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그 희망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저희를 주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 주소서.

<주님의 기도>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강복

(사제나 부제가 있을 때)

†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 또한 사제와 함께.

†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 우리의 도우심은 주님의 이름에 있도다.

◎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로다.

†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 아멘.

(사제나 부제가 없을 때는)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아멘.

마침ंगा 116번 주 예수 바라보라

5) 성지에서 미사

▶ 미사 전 해설

찬미 예수님!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온 몸과 마음으로 증거 하신 신앙선조들을 기억하며 그분들 발걸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신앙선조들의 후예인 우리는 오늘 이 시간까지 어떤 마음 자세로 주님께 나의 삶을 봉헌해 드리고 있는지, 행여나 타성에 젖어 나태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2백 여 년 전 이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신앙의 열정 속에 살기로 다짐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먼저 우리 교구에서 시복시성 청원을 하고 있는 순교자 박상근 마티아의 시복시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상근 마티아 시복.시성 기도문

순교자들의 의연한 삶으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시는 하느님 아버지,
이 땅의 수많은 순교자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과 진리를 증거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문경의 순교자 박상근 마티아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갖 장애와 위협을 무릅 쓰고 선교사를 도왔으며,
확고한 믿음으로 온갖 회유와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한 생명 다 바쳐서 하느님을 섬겼사오니
그에게 시복.시성의 영광을 허락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순교자 박상근 마티아의 삶을 본받아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을 비울 줄 알고
 하느님의 사랑과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친구와 도움으로
 믿음에 대한 굳은 신뢰와 희망을 갖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시작성가 : 283번 ‘순교자 찬가’

자비송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현세생활에만 가치를 두고 열중하여
 나 자신과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소홀히 해 온 저희의 부족
 함을 용서 청하오니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신앙 선조들을 찾고, 기억하고, 그들의 숭고한 주님 사랑의
 삶을 본받고자 함에 소홀했던 저희의 잘못을 용서 청하
 오니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개자로 계신 주님,
 주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 서로를
 위하고 사랑함에 부족했던 삶을 용서청하오니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본기도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200여 년 전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신앙의 선조들로 하여금 산 골골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박해의 칼날을 견디어 내고 그 복음의 씨앗을 지키게 하시었으며, 마침내 40년 전 저희 안동교구를 세우시어 그 복음의 씨앗을 번성케 하시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하셨으니 저희가 언제나 신앙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르며 이 터에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구는데 열정을 쏟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제1독서

<하느님께서서는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3,1-9

1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2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3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과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4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5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은 뒤 은혜를 크게 얻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당신께 맞갖은 이들임을 아셨기 때문이다.

6 그분께서는 용광로 속의 금처럼 그들을 시험하시고,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7 그분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에 그들은 빛을 내고, 그루

터기들만 남은 밭의 불꽃처럼 퍼져 나갈 것이다. 8 그들은 민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지배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9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은총과 자비가 주님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는 선택하신 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와답송

시편 126(125),1-2ㄴ.2ㄷ-3.4-5.6(◎ 5)

◎ 눈물로 씨 뿌리던 이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주님께서 시온의 운명을 되돌리실 제, 우리는 마치 꿈꾸는 이들 같았노라. 그때 우리 입은 웃음으로, 우리 혀는 환성으로 가득하였노라.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도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노라. ◎

○ 주님, 저희의 운명을, 네 겹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이들, 환호하며 거두리이다.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이, 곡식 단 들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2독서

<죽음도, 삶도,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8,31ㄴ-39

형제 여러분, 31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32 당신의 친 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 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33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34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35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36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37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 내고도 남습니다. 38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39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원오송 1베드 4,14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알렐루야.

복음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23-26

그때에 23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24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25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26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싸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강론 후 잠시 묵상한다.>

<신경>

보편제양기도

<각 공동체 스스로가 그 성지의 특성에 맞게 준비한 기도를 바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형제 여러분, 기묘한 방법으로 이 땅에 신앙의 씨앗을 뿌리시고 싹트게 하시고 굳건한 선조들과 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거름을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찬미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무수한 신앙의 선조들이 당신의 은총으로 복

음과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피를 흘렸사오니, 우리도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특별히 40주년을 맞는 안동 교구민 모두가 순교자들의 삶을 본받아 서로 한 마음으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느님 아버지,
끝없는 물질문명의 이기로 인간생명이 도외시당하고 권력 앞에서는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종잇장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를 사는 저희가 창조 때 당신께서 생명을 불어넣어주신 그 거룩함으로 마음을 열어 어떠한 생명이라도 존중받으며 서로 안에서 당신 얼굴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소서.

3. 자연 생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연 안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
천지 창조 때부터 인간과 함께 살아가도록 베풀어주신 이 세상 자연 만물을 선물로 주셨으니 인간인 저희가 자연을 정복하고 저희의 힘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어 참으로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소서.

4.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순교자의 후손임을 자랑하는 저희가 한 형제로서 서로 믿으며 사랑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언제나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

+ 주님, 순교자들과 같은 곳곳한 신앙을 간절히 바라는 자

녀들의 기도를 너그려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예물준비 성가 : 216번 ‘십자가에 제헌되신’

예물기도

전능하신 주 하느님, 주님 백성이 드리는 봉헌을 자비로이 받아 주시고, 온 몸을 바쳐 신앙을 증거 한 복된 순교자들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 자신을 주님께 맞갖은 제물로 바치며 온 세상 사람들의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우리 주…….

감사송

- | | |
|--------------------|-------------|
| † 주님께서서 여러분과 함께 | ◎ 또한 사제와 함께 |
| † 마음을 드높이 | ◎ 주님께 올립니다. |
| †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 |
| ◎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 |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 선조들을 복음의 빛으로 불러 주시어 갖가지 빛나는 덕행을 그들에게 갖추게 하시고, 죽기까지 신앙을 지키게 하시어 마침내 성자의 승리를 함께 누리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와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여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영성체 성가 : 166번 ‘생명의 양식’,
151번 ‘주여 임하소서’,
502번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영성체 후 묵상

<순례를 마치면서>

사랑의 주님!

저희는 오늘 백년 이백여 년 전 선조들이 오가시던 길을 걸었습니다.

걸음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이 땅에 선조들의 발자국 위를 밟고 또 밟으며 걸었습니다. 그분들의 발걸음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이 길 위에 새겨져 있을 그 발자국 자리 자리에 저희들의 발자국을 올려놓고, 그분들의 숨결을 함께 느끼며 그분들과 하나 되어 걸었습니다.

우리들이 걸었던 이 길엔 아직도

우리의 신앙선조들이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마음 속 깊이 다가온 그분들의 무수한 아름다운 삶들이

다시금 새롭게 보이고 들립니다.

중국을 넘나들며 어렵사리 모셔온 신부님과 교우들이

서로 정답게 주고받던 아름다운 주님 이야기가

저 산자락 구불구불한 오솔길이며 능선들에서부터 두런두런 속삭이듯 들려옵니다.

어린 아들이 이 길, 이 흙 위에 아기 예수님, 성모님, 요셉 성인의 성가정을 아름답게 그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성모님 노래를 부르며 온 가족이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는 모습도 보입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어머니의 모습도 보입니다.

형제여, 자매여! 하며 서로를 위로 하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서로 나누고 기뻐하던 공동체의 아기 자기한 모습도 눈에 선합니다.

흙을 빚어 옹기를 굽고, 구운 옹기를 이 골 저 골로 지고 다니며,

그 옹기 속에 하느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가득히 담아

옹기와 함께 복음도 전해주는 할아버지의 모습도 보입니다.

주님 모신 그 기쁨을 서로 나누면서 이 길을 얼마나 행복하게 걸었겠습니까?

하지만, 어둡고 추운 밤, 죽음의 그림자가 소리도 없이 조여 오던 그 밤에,

다급히 몸을 숨겨야했던 순간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포졸들의 거친 발길질과 포승줄에 온 몸 묶인 채

마치 짐승처럼 끌려가던 가족과 친지들을 먼발치에서 바라 보았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시려왔겠습니까?

“천국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러니 잘 준비하십시오.

우리의 이 치명이 끝나면 우리는 천국의 진복자가 될 것이며 이 행복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의 과거시험을 보러가는 길입니다.”

그 한 마디 한 마디 거침없이 내뱉는 복음의 증언들이 오늘도 되살아

생생하게 우리의 컷전을 울립니다.

신앙의 끈으로 묶여 있는 우리는,

비록 시대와 삶의 자리는 달랐더라도, 영원이라는 주님의 역사 안에서는 박해시대 그 선조 신앙인들과 하나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니 저희는 신앙의 선조들과도 하나 됨을 느낍니다. 미사 안에서 모셨던 그 성체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도 함께 모시니, 우리는 그분들과 하나가 되었고, 또 하나입니다. 세례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니 우리는 모두 한 분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선조 103위께서 성인반열에 오르실 때 “이제는 여러분이 증거 할 차례입니다.” 라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순백의 순교의 정신으로 주님을 증거 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과 은총의 샘이신 주님!

교구설정40주년을 맞이한 저희 안동교구의 모든 사제, 수도자, 교우들이 사랑으로 한마음 한 몸이 되어 이 터에서 열린 마음으로 소박하게 살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나누고 섬김으로써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구게 하소서. 아멘.

영성체 후 기도

하느님 아버지, 교구 40주년을 맞이하여 신앙 선조들의 아름다운 삶을 본받고자 성지를 순례하며 받아 모신 성체로 힘을 얻고 주님께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열린 마음으로 소박하게 살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나누고 섬김으로써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구는데 혼신을 다 바치게 하소서. 우리 주…….

강령강복

(신부님께서 오늘 이 순례를 통해서 우리가 전대사의 은혜를 받게 됨을 간단하게 설명한 후 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 또한 사제와 함께

(다함께 고개를 숙이고 강복을 받으시다)

†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교구 40주년을 맞이하여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고자
도보 성지 순례에 참여한 교우들에게
자비로이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 아멘.

† 이 교우들에게 희망과 믿음과 사랑의 선물을

풍성히 베푸시어

온갖 시련에서 언제나 이 교우들을 구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소서.

◎ 아멘.

† 이 교우들의 발걸음이 선조들과 하나되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어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 전능하신 천주 +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 미사가 끝났습니다. '기쁘고 떳떳하게'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파견성가 : 286번 '순교자의 믿음'

6) 성지에서의 순례를 마치면서

(미사를 할 경우 영성체 후 묵상 내용으로 순례 마침글을
대신함)

사랑의 주님!

저희는 오늘 백년 이백여 년 전 선조들이 오가시던 길을 걸
었습니다.

걸음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이 땅에 선조들의 발자국 위를
밟고 또 밟으며 걸었습니다. 그분들의 발걸음을 마음으로 느
끼면서 이 길 위에 새겨져있을 그 발자국 자리 자리에 저희
들의 발자국을 올려놓고, 그분들의 숨결을 함께 느끼며 그분
들과 하나 되어 걸었습니다.

이 길 위에 새겨진 눈물과 신앙의 발자국 위를 걸으면 걸을

수록

나의 두 발은 선조들의 발과 합하여지는 듯 했고,
이 길 위에서 가만히 눈을 감고 서 있으면
내 뺨을 스치며 지나는 뜨거운 이 바람이야말로
우리 선조들의 가쁜 숨을 고르게 해주고 이마의 땀방울을
식혀주던
바로 그 바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들이 걸었던 이 길엔 아직도
우리의 신앙선조들이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마음 속 깊이로 다가온 그분들의 무수한
아름다운 삶들이
다시금 새롭게 보이고 들립니다.
중국을 넘나들며 어렵사리 모셔온 신부님과 교우들이
서로 정답게 주고받던 아름다운 주님 이야기가
저 산자락 구불구불한 오솔길이며 능선들에서부터 두런두런
속삭이듯 들려옵니다.
어린 아들이 이 길, 이 흙 위에 아기 예수님, 성모님, 요셉
성인의 성가정을 아름답게 그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성모님 노래를 부르며 온 가족이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는
모습도 보입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어머니의
모습도 보입니다.
형제여, 자매여! 하며 서로를 위로 하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서로 나누고 기뻐하던 공동체의 아기 자
기한 모습도 눈에 선합니다.
흙을 빚어 옹기를 굽고, 구운 옹기를 이 골 저 골로 지고 다
니며,

그 용기 속에 하느님의 기쁜 소식(복음)을 가득히 담아
용기와 함께 복음도 전해주는 할아버지의 모습도 보입니다.
주님 모신 그 기쁨을 서로 나누면서 이 길을 얼마나 행복하
게 걸었겠습니까?

하지만, 어둡고 추운 밤, 죽음의 그림자가 소리도 없이 조여
오던 그 밤에,

다급히 몸을 숨겨야했던 순간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포졸들의 거친 발길질과 포승 줄에 온 몸 묶인 채
마치 짐승처럼 끌려가던 가족과 친지들을 먼발치에서 바라
보았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시려왔겠습니까?

천주학쟁이를 잡으러 다니는 관원들 앞에서 목숨마져 아끼
지 않고

“내가 당신들이 찾던 사람ियो.” 하며 과감히 나섰던 그분들
의

신앙과 용기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천주께서는 나의 임금이시며, 아버지이십니다.”

“천국에서 만나야합니다. 그러니 잘 준비하시오.

우리의 이 치명이 끝나면 우리는 천국의 진복자가 될 것이
며 이 행복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의 과거시험을 보러가는 길입니다.”

그 한 마디 한 마디 거침없이 내뱉는 복음의 증언들이 오늘
도 되살아

생생하게 우리들의 컷전을 울립니다.

신앙의 끈으로 묶여져 있는 우리는,

비록 시대와 삶의 자리는 달랐더라도, 영원이라는 주님의 역

사 안에서는 박해시대 그 선조 신앙인들과 하나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니 저희들은 신앙의 선조들과도 하나 됨을 느낍니다. 미사 안에서 모셨던 그 성체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도 함께 모시니, 우리는 그분들과 하나가 되었고, 또 하나입니다. 세례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니 우리는 모두 한 분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선조 103위께서 성인반열에 오르실 때 “이제는 여러분이 증거 할 차례입니다.” 라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우리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순백의 순교의 정신으로 주님을 증거 해야 할 때입니다.

이 땅에 선조 신앙인들을 보내주시어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주님! 교구 40주년이 되는 이 때 신앙 선조들의 훌륭한 삶이 우리 모두의 발걸음에 크나큰 힘이 될 것이니 앞으로 50주년을 향하여 더욱더 힘찬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소서.

사랑과 은총의 샘이신 주님!

교구설정40주년을 맞이한 저희 안동교구의 모든 사제, 수도자, 교우들이 사랑으로 한마음 한 몸이 되어 이 터에서 열린 마음으로 소박하게 살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나누고 섬김으로써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구게 하소서. 아멘.

8. 성가

118. 골고타 언덕

바르지 양계 그레고리안

1. 무 거 운 십 자 가 지 고 가 신
 2. 십 자 가 통에 탈 리 신 주 예 수
 3. 고 통인 에 짓 눌린 주
 4. 죄 인 을 부 르 신

골 그 하 십 고 내 이 가 언 우 놀 그 덕 리 라 은 을 도 며 혜 생 담 땅 내 각 게 이 리 하 하 울 시 며 사 고 어

우 고 그 영 리 통 언 원 가 이 덕 한 지 우 어 생 은 리 둠 명 죄 를 이 을 뉘 뎃 질 주 우 처 어 셧 치 올 올 으 니 때 때 니

주 주 구 감 여 님 원 사 용 을 의 와 서 따 주 찬 하 르 님 미 움 게 떠 반 소 하 나 으 - 소 시 소 서 서 네 서

116. 주 예수 바라보라

Choral-Bach

Hans Leo Hassler

Larghetto



1. 주 예수 바라 보 라 정 성 된 맘 으 로 거
2. 만 왕 의 왕 인 예 수 면 류 관 이 - 라 야 당
3. 주 예수 지 고 가 신 십 자 가 보 - 아 라 우
4. 이 세 상 하 직 한 때 내 맘 에 오 - 시 어 수



룩 한 머 리 위 에 피 땀 이 흐 - 르 며 지
신 의 머 리 위 에 마 땅 하 시 - 거 늘 영 무
난 의 은 행 위 로 세 못 한 모 - 든 죄 자
의 은 행 위 로 세 못 한 모 - 든 죄 자



존 - 한 주 의 몸 에 상 가 득 하 다 목
성 - 한 가 시 관 어 어 득 쓰 나 내
김 - 개 내 려 관 리 괴 해 쓰 다 불
바 - 하 신 성 부 께 러 께 러 주 소 십



석 - 과 같 은 자 야 눈 물 도 없 느 냐
죄 - 를 회 하 야 어 닦 치 고 치 리
쌍 - 한 죄 하 여 인 닦 고 주 소 서
자 - 가 품 에 안 고 평 안 하 쉬 리 다

283. 순교자 찬가

Andante Moderato

최 민순 작사

이 문근 작곡



1. 장하다 순교자 주 님의 용사여 높으신 영광에
2. 기우는 정의의 목숨을 건지려 주림과 추위와
3. 한몸을 혈어서 백 두산 모으고 선혈은 쏟아서



불타는뉘이여 칼아-래쓰 러-저 백골-은없
죽음과싸우며 겨레-의힘으-로 찾아-온진
동해를이루어 무궁-한신 앙-의 나라-를다



어-도 푸 르른 그 충 절 찬란히살았 네
리-를 굳 세 계 굳 세 계 피로써지켰 네
으-신 크 신 공 하 늘에 영원히빛나 리



무 궁 화 머 리마 다 영 롱 한 순 교자여



승 리에 빛 난 보 람 우 리 게 주 읊 소 서

216. 십자가에 제언되신



1. 십자가에 제헌되신 구원의주 예수여
 2. 무한하온 주의 사랑 우리 기르시도다
 3. 주여 우리 기다리니 우리에게 오소서



거룩하온 살과 피를 제물로 바쳤도다
 제사때에 다시 오사 희생제물 되시네
 주의 몸을 모시고서 영원토록 살리라



여기 우리 작은 정성 주대전에 바치니



너그러이 받으소서 미약하온 이제 물

166. 생명의 양식

M. Suzanne Toolan



1. 생명의양식 인 나 에 게 로 오 너 라 나
2. 이 빵은 나의 몸 너 희 에 게 주 노 라 내
3. 내 살을먹는 자 내 피를마시는 자 내
4. 나는 부활 이 요 나 는 생명이로 다 나



믿는사람들은 목마르지않으며 내안에 살게되
 몸먹는자들은 죽음당하지않고 영원생명을얻으
 안에 살게되리 끝없는행복속에 평화를누리리
 믿는사람들은 죽음의오더라도 영원히 살리



리
 나그를 사랑하여 나그를 살게 하
 라



리 나그를 영원히 영원히 살게 하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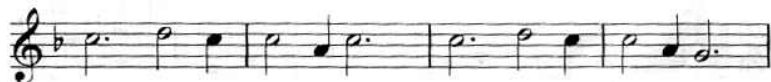
151. 주여 임아소서



1. 주 여 임 하 소 서 내 마 음 에
 2. 내 피 요 살 이 요 내 생 명 이 에
 3. 내 나 아 가 리 다 주 대 전 에



암 후 에 헤 매 는 한 마 리 양 을
 내 사 랑 전 체 여 나 의 예 수 어
 성 혈 로 씻 으 사 받 아 주 소 서



태 양 과 같 으 신 사 랑 의 빛 으 로
 당 신 의 사 랑 에 영 원 의 희 살 리 다
 거 룩 한 몸 이 여 구 원 의 성 체 여



오 소 서 오 주 여 찾 아 오 소 서
 오 내 주 오 천 주 아 아 주 소 서
 영 원 한 생 명 을 내 계 주 소 서

502.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1. 주 의 빵 을
2. 주 의 진 리
3. 주 의 기쁨
4. 주 의 희 망

서 로 나 누 세



주 의 빵 을
주 의 진 리
주 의 기쁨
주 의 희 망

서 로 나 누 세



주 님 의 계 명 을 지 키 려 하 - 는 자
죄 악 을 피 하 고 주 님 뜻 에 - 따 라
주 님 의 나 라 가 우 리 안 에 - 있 으
억 님 린 자 들 을 일 으 켜 세 - 우 면



여 서 주 의 빵 을 나 누 세
니 진 실 하 게 살 아 기 세
서 서 로 하 기 뵈 나 누 세
서 서 로 하 기 뵈 나 누 세

286. 순교자의 믿음

보통 속도로 F. Henry and J.G. Walton

1. 환 난 과 뽽 - 박 중 - 에 서
 2. 순 교 자 옥 - 에 간 - 혀 도
 3. 순 교 자 민 - 음 본 - 반 아

순 교 로 민 음 지 - 컸 네
 양 심 은 자 유 하 - 왔 네
 형 제 를 사 랑 하 - 리 라

이 민 음 생 - 각 할 - 때 에
 우 리 도 신 리 - 위 하 위 어
 인 자 한 말 과 행 - 위 로

기 뽽 이 충 만 하 - 도 다
 주 님 뽽 생 명 바 - 치 리 라
 믿 음 전 파 하 - 리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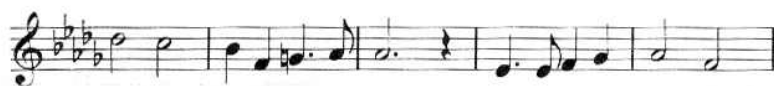
순 교 자 민 음 본 반 아
 순 교 자 민 음 본 반 아
 순 교 자 민 음 본 반 아

끝 끝 까 지 충 성 하 리 라
 끝 끝 까 지 충 성 하 리 라
 끝 끝 까 지 충 성 하 리 라

238. 자모신 마리아



1. 자 모신마 리아 축복하소 서 이 제와 영
 2. 자 모신마 리아 축복하소 서 나 의모든
 3. 자 모신마 리아 축복하소 서 세 상을 떠



원 히 평화 케 하 며 나 의사 언 행 위
 은 인 돌아 보 소 서 어 머님 의 손 길
 날 때 위로 하 시 며 나 의모든 삶 을



착 하게 하 사 당 신 품 에 항 - 상 쉬 게 하 소
 녀 리 펴 시 어 모 든 집 과 맘 - 을 축 복 하 소
 말 겨 드 리 니 인 자 하 게 나 - 를 보 호 하 소



서 당 신 품 에 항 - 상 쉬 게 하 소 서
 서 모 든 집 과 맘 - 을 축 복 하 소 서
 서 인 자 하 게 나 - 를 보 호 하 소 서

236. 사랑아울 어머니



1. 사 랑 하 올 어 머 니 여 우리 위 로 자 시 여 고 귀
2. 모 든 근 심 슬 픔 들 이 우리 괴 롭 힐 때 에 기쁨
3. 깊 은 사 랑 크 신 자 비 가 이 없 이 주 시 는 어 머



하 온 동 정 너 여 우리 보 호 하 소 서
이 신 마 리 아 여 우리 도 와 주 소 서 동 정
니 와 한 맘 으 로 우리 살 게 하 소 서



성 모 마 리 아 당 신 사 랑 주 소 서 모 든



근 심 슬 픔 에 서 우리 구 하 옴 소 서

399. 주님 안에 아나

버리지 않게 Sebastian Temple

1. 주 님 안 에 우 리 모 두 한 마 음
 2. 주 님 안 에 우 리 모 두 한 형 제
 3. 예 수 님 과 우 리 하 나 되 었 네

주 님 안 에 우 리 모 두 한 마 음 주 님
 주 님 안 에 우 리 모 두 한 형 제 주 부
 예 수 님 과 우 리 하 나 되 었 네 성 신

도 하 나 요 우 리 도 하 나 요 주 님
 한 주 안 에 우 리 는 한 형 제 주
 이 오 시 어 하 형 세 되 었 네 주 님

의 마 음 은 우 리 들 의 맘 이 네
 는 한 형 제 면 우 리 들 은 한 믿 으
 과 함 께 면 결 코 죽 지 않 으 리

주 님 안 에 우 리 모 두 한 마 음
 주 님 안 에 우 리 모 두 한 형 제
 주 님 안 에 우 리 하 나 되 었 네

<마지막 장 앞 페이지에 붙임>

칼레 강 신부 말씀

아침에 깨었을 때에는 누워서라도 먼저 네 가지 일을 할지니, 하나는 성호를 그어 몸과 행실을 축성(祝聖)하고, 둘은 예수•마리아•요셉을 불러 입과 말을 축성하고, 셋은 '영혼 육신과 오늘 할 일을 다 천주께 드리나이다.'라고 하면, 낮에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공로가 될 것이요, 넷은 무슨 병(毛病:나쁜 습관)을 오늘 정개(定改)하기를 정지(定志)할지어다. 옷을 입을 때는 "주님, 제 육신을 이같이 호위하고 보존하여 주시니, 제 영혼도 이같이 호위 보전하소서"하고, 또 세수할 때에는, "주여, 제 얼굴을 깨끗하게 하시니, 제 영혼도 이같이 깨끗하게 하소서"하고 기도하라.....